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의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2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4월 16일 (토) 제 1870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부활은 명령이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13년 3월이 다 가던 어느 날 차가운 바다를 향해 가장 가슴 아픈 명령이 있었다. 천안함 용사들에 향한 명령이었다. "772함에서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철축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터어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오라. 보수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처론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浮上)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아무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도 아직 울고 동료도 국민도 여전히 슬픔을 가눌 길 없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은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행렬을 멈추신 예수님이 청년에게 부활을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눅7:14-15).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남는 청년의 의지가 조금도 없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은 어떤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다 굶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막5:41-42).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났다. 소녀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났다. 다비다도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대로 살아났다. "베드로가 사

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행9:40).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 부활을 명령하니 명령대로 모두 살아났다. 기독교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우리 모두 믿고 고대하는 부활의 그날이 있다.

그날의 부활은 오늘의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도 체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활의 명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그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부활의 명령은 사명의 명령으로 이어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60:1-2). 그렇다. 부활한 자는 혼자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다. 빛을 비추어야 한다. 아직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사람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사람들은, 빛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보게 되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사60:4). 부활은 많은 사람을 옴은 데로 돌이키는 찬란한 빛의 사명도 품고 있다.

모세가 보았던 불꽃은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라. 잠목에 불과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았다. 하나님의 불을 품은 떨기나무는 80세, 생명을 다한 것 같은 떨기나무에 불과한 모세에게 여호와와 불이 임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불꽃은 떨기나무는 연약함에도 살아나 다시 죽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예표한다. 부활은 반드시 빛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빛은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는 빛이어야 한다. 그렇다. 부활은 사명을 품은 명령이다. 차가운 밤바다와 같은 2022년 4월이다. 어떤 환경이든 명령은 명령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 허공에 부서지지 않도록 즉각 응답하라.



부활시



이인미 시인

부활, 그 위대한 탄생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고
자궁같은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야
참 생명이다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된다.
시신 뿌릴 화장터가 필요 없고
악의 바이러스가 행세치 못하는
영광의 빛의 나라가 도래한다
완전한 신유의 날이 달려 오고 있다
절망하지 마라, 죽음과 역병앞에 떨지 마라,
시공 넘어 중력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 입혀 주실 날이 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세상 죄와 죽음의 폭력앞에
새 탄생의 노래를 부를 때다
결코 무덤에 갇힐 수 없었던 하나님,
죽음의 휘장 열고
무덤을 걸어 나오신다
모든 죽음을 죽이시고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며
인류 향해 손 내미시는
저 의의 태양의 손을 잡으라
그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라,
순결한 신부교회와 혼인하시려
마음에 셋별로 뜨시고, 우리안에서
보석인격을 건축하고 계신 분,
그 아름다운 연합도성의 꿈 이루시리니
가난과 악행이 다 죽고 사회정의가
예수의 의의와 부흥로 구현되는
나라가 달려오고 있다
이제, 그의 성품의 열매로 짠
세마포 옷 길게 늘이고
신랑과의 비밀의 상흔 지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자
부활생명으로 삶을 직조하며....

이인미 시인은 문학선교원 시전 대표, 시로 드리는 예배, 생명언어 사역전도사, 자유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당신은 나의 시", "빛의 신부들", "하프 타는 여자" 외 다수와 간증시집 "하나님의 시인"이 있다.



시론
이동진 목사



부활절 설교
강기봉 목사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center.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치위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료
- 신경 및 잇몸치료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 의: 714-470-4563

말씀과 땅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세계선교교회 장로·집사·권사

임직감사예배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2년 4월 24일 (주일) 오후2시
장소 : 세계선교교회 본당

설교 : 김민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임직자 장로장립: 강용구, 이근춘, 이종진
안수집사임직: 유승중, 정승훈
권사임직: 김제인, 박성자, 유귀주, 최엘리저
명예권사추대: 박숙자, 송영분, 이옥순

시론

그래야 부활이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컵이 있다. 이 컵은 육체, 컵 속의 물은 마음, 나머지 비어진 부분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시작한 이야기는 방 안의 공간과 바깥세상의 하늘과 지구 너머 우주로 이어지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인생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다.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강의 중 한 부분이다.

오늘도 인생마당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컵이 예쁘다, 비싸다, 골동품이다. 모던하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목이 말랐고, 누군가 와서 컵에 물과 음료수 등을 채워주자 물은 마신 사람들은 시원한 느낌, 푹 쓰는 느낌, 따뜻한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컵 얘기와 물 얘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때 부모를 따라와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들판으로 언덕으로 몰려다니며 풀을 따서 풀피리도 만들고, 버들강아지로 간지럽히며 까르르 웃어대고, 땀에 젖은 채로 풀밭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데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닦아주는 솔바람에 미소가 지어진 아이들은 옆에 흐르는 냇가로 달려가 두 손을 움켜서 물을 퍼마시고는 신나게 노래도 불렀다.

밤이 되니까 어른들은 지루해지고 졸음이 몰려와 책상에 엎드리거나 소파에 기대고 어떤 이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그런데 아이들은 밤이 되어도 신났다. 눈앞에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낮에 주운 조약돌로 공기놀이 하거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세어보다가 이쁨도 붙여주며 마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연영상을 보다가 해본 상상이다. 현실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늘의 아이들은 이미 뛰어놀지 않는다. 이어령 교수는 컵 이야기에서 영혼의 이야기를 광활하게 펼쳐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데, 어른들은 컵과 음료수 이야기로 정신이 없다. 그러나 영상 속의 강연은 컵의 비어있는 공간이 맞닿은 실내공간이 집밖으로 이어지고, 집밖의 거리가 저 멀리 하늘로 이어지고 그렇게 공간은 우주로 넓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드디어 생명의 근원과 마침내 맞닿은 우주를 넘어서는 영생의 세계를 펼쳐보여 주고 있다.

올해도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절기에 갇혀버린 부활은 사순절기간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 마침내 부활의 새벽예배와 연합축하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도무지 놀라움도, 기대감도, 흥미로움도 없이 지내는 것 같다. 그렇게 올해의 종교의식도 정중하게 잘 진행되고있을 뿐 아닌가.

‘부활’은 인간이 삶과 죽음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넘고, 마음과 생각의 우월감도 넘어서 영생에 연결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진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는 단어이다. 절기행사의 악세서리나 배너에 멋지게 쓰여진 글씨 문화로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인데, 올해도 죽은 언어처럼 지나갔다.

영상 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강동과 ‘I’m blind, please help’라고 쓰인 종이를 앞에 두고 앉았고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동전 한두 개를 던져주었다. 그러다 지나던 한 사람이 거지 앞에 앉더니 그 종이 뒷면에 뭔가를 써서 앞에 놓아주고 갔다. 그러자 갑자기 지나는 사람들이 저마다 동전과 지폐를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뭐라고 써주었기에? 그 종이에 써준 글은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올해도 내년에 또 당연히 돌아올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다. 늘 반복되어온 인류역사처럼 부활절도 늘 반복되어왔다. 부활은 반복될 수 없는 생명과 능력인데 우리의 부활절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내년 부활절을 위해 배너를 차곡차곡 접어두고 있을 뿐이다.

“이 아름다운 날을 나도 보고 싶다”는 강력한 요청의 언어로 바뀐 거지의 종이판처럼 우리의 부활절은 바뀌어야 한다. 애초에 예수부활이 가진 그 진정한 생명력과 운동력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래야 부활이다.

djlee7777@gmail.com

부활의 소망, 새로운 생명 그리고 교회의 시작!

2022년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열리는 세상 경험한 여인들과 제자들

초대교회의 시작은 암울하기 그지없었다. 구원자라 믿었던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 바빴다(눅24:19-1, 요20:19). 그러나 얼마 뒤 그들은 180도 바뀌었다. 거침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고, 살기등등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질책했다. 담대한 그들의 행보는 하루에도 3천 명씩 입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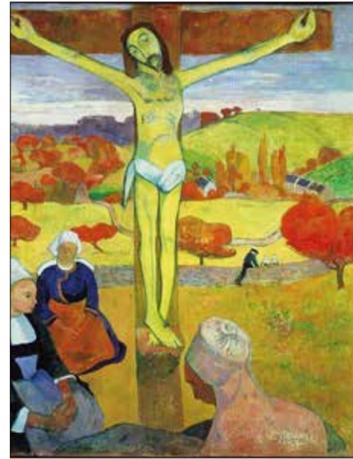
는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 무엇이 그들을 바꿔 놓았을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자량거리였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을 잃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정오에 온 땅을 덮은 어둠이(막 15:33) 제자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덮여버렸다. 그래서 3시간 후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또 그날 밤이 지난 후 어둠이 떨어질 토요일 새벽이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혼란과 절망의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렇게 밤과 같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다음 날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다정하게 그 이름

갑자기 동쪽에서 태양빛이 나타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면 밤은 깨져버린다. 굳게 닫힌 밤의 철문을 깨부수고 새벽이 갑자기 출현한다. 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이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밤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숨은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죽음의 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주님께서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에야 그들은 부활의 새벽을 맞게 되었다(요20:19-21). 이처럼 부활의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야 열린다.



고갱(Paul Gauguin)의 황색의 그리스도(The Yellow Christ, 1889)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눅24:1).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아직 어두울 때에”(요20:1), 곧 새벽이 채 오지

그래서 부활은 새벽이다. 단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때가 새벽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이에게는 죽음의 밤이 끝나고 낮과 같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점에서 부활은 새벽이다.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동일한 맥락에서 프랑수아 가갱(Paul Gauguin)은 ‘황색의 그리스도’(The Yellow Christ, 1889)라는 작품을 통해서 죽음의 상징인

펜데믹 뚫고 온 부활의 새벽 맞는다!

많은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녀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 그들이 찾고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 곧 죽은 몸이었는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빈 무덤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곳에 있던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무덤 곁에 남아 슬퍼하며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게 됐다.

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그제야 자신 앞에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찾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랍오니(선생님)”라고 주님을 불렀다(요20:14-16). 마침내 그녀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깨어지고, 새벽이 힘차게 동녘다.

새벽은 말 그대로 낮이 밤을 부수고 갑자기 출현하는 때다. 밤이 깊고 깊어져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마리아가 보고자했던 것은 ‘죽은 예수의 몸’이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놀랍게도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였다. 깊은 밤 속에 있던 마리아에게 드디어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사고의 기둥이 깨어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의 밤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낮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이유를 그려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고요히 잠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적한 가을 농촌을 배경으로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의 색상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로 조용히 물려온다. 십자가 주변에 앉아 잠잠히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경건함이 전해진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22 Easter Vigil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at the Shinshun Church in Los Angeles, featuring dates, times, and names of participants.

누가복음 24장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인 누가는 헬라인들이 보는 인간관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대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며,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신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간미가 흐릅니다. 특히 마지막 장인 24장은 인간이 이르러야 할 마지막 단계 부활을 기록했는데, 무척 자연스럽고 쉬워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며, 믿게 하시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심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알려진 데는 안식 후 첫 날 새벽에 향품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덤가에서 현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저희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마20:19). 즉시 열한 사도와 또 함께한 자들에게 달려가 알렸지만 허탄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보았으나 예수님을 가렸던 세마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마24:1-12).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는 강하게 거부한 적이(마16:16-22)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역시 다른 데가 있음이 보입니다.

다음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의 마을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비로소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려 했습니

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불법자들의 손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허무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가끔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은혜를 말한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아주 편협된 이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함께 경험한 여호와이레(창22:14),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일들이 부활을 내어다보게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도 수백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왕하4:35), 자신은 죽

수도 없는 중풍병자의 육과 영을 고쳐 안심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던 생업을 그만 두고 머리 돌 곳도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편안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경 제력을 가진 어부 직을 버리고, 수입 좋은 세리 직을 뒤로 했는데도 심령은 만족스럽고 평안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하셨을 때 전혀 낯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 니다. 전에 맛보았던 바로 그 평안함이 되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허둥댁니다. 그만큼 부활은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이 붙잡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들에게 또 다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 초점은 제자들로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마24:35).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적부터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신6:4-9). 그러나 그 성경을 예수님께로 적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인생 전반부를 가말리엘의 율법 이해 수준에 매어 살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라비아로 먼저 가서 3년간을 지내면

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기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달려진 집의 장남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역사가 모형을 된 것입니다.

그 때 그 피를 발라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종다한 잡족도 함께 했습니다. 나이 85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언약의 땅을 맡겨 달라 나선 갈렙 역시 그 '잡족' 중 한 사람입니다(수14:6-12). 이것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자기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같은 하나님이지사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피를 흘리게 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시고 뱀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여자와 뱀은 서로 적대감을 가질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첫 아담이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아담(둘째 아담)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머리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제어할 자는 사탄보다 더 강한 영적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를 부술 자는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아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여자가 잉태하여 낳습니다.

둘째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첫 아담과의 연대성 안에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아담과의 연대성 안에 있는 아담과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흠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새 아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창3:15)을 새 아담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7:14), 그가 낳은 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사9:6-7).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53절

강기봉 목사
(KAPC 전 총회장, 뉴욕백인교회 원로)

어 빼만 남았지만 전쟁으로 급해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은 시체가 빼에 닿자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왕하13:21).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심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또 함께한 자들을 대하십니다(마24:33-43).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마24:36). 평강은 모세의 글에서만 20회 이상 쓰일 정도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축복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색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편안케 하셨습니다. 바다에 부는 거센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삼킬 것 같이 넘실거리던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편안케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못 박히고 찢기운 손과 발을 만져 보게 하심으로 제자들로 믿게 도우십니다. 그 손과 발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손과 발이었습니다. 체온도, 부드러움도 같았습니다. 또 떡을 것을 정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예님의 잡수시는 모습은 제자들이 이미 많이 본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안케 하시고 믿도록 하시려고 꼭 엄마처럼 형님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게 된 데는 예수님의 이런 자상하시고 따스한 보살핌의 덕분입니다.

3.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

저자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거듭 말씀하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드디어 믿기 시작한 제자

서(갈1:17) 무엇을 했을까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을 다시 읽고 또 읽으리라 짐작하는 것이 원만한 추정이라 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그의 사신서에 구약적인 배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점목시키는 은사를 익혔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으뜸인 십계명을 바로 읽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마22:36-40), 레위기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 경외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며 온전해 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큰 도로의 신호등은 파란등보다 빨간 등이 훨씬 큼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다시 사신 일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

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육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상이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는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크게 요동쳐야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는 계시지 않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게 하

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육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상이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는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크게 요동쳐야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는 계시지 않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게 하

(9면으로 계속)

오렌지카운티 부활절연합예배

예수 부활 하셨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팬데믹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OC지역을 섬기는 목사회, 여성목사회, 평신도연합회 및 장로협의회는 전통적으로 드려온 부활절새벽 연합집회의 회복을 선포하며 인근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부활의 아침, 이 날 만큼은 교회의 모든 울타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함께 선포하며 성도가 다시 하나되는 자리,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 회복의 첫 신호탄을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목회자님들께서는 교회의 온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
이사장 신원규 목사
후원 이사장 김영수 장로

"4세부터 14세 어린이 복음화를 위한
4/14 원도우 무브먼트 키퍼런스
각교회 목회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초대합니다.

일정: 5월2일-4일(월-수)
숙식이 제공: 2인1방
(등록비 500불 전액 프리미엄재단 제공)됩니다.
1차 신청마감: 4월10일
신청문의: (714)722-4805

일시 2022년 4월 17일 주일 오전 5시30분

말씀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714) 403-2193

공동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카페

카페집이 이태리에 처음 문을 연 것은 3백 년 전인 1720년이다.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 한쪽에 있는 카페 플로리

안(Caffe'Florian)이다. 그에 비해 로마는 1760년에 쇼핑 중심가인 콘도티 거리에 카페 그레코(Caffe'Greco)가 시작

되었다. 두 장소 모두 지금은 자릿세가 엄청날 텐데 몇 백년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놀랍다. 그러나 워니 워니 해도 이태리에서 카페 맛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나폴리를 택한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다.

가끔 방문할 때 마시는데, 나폴리의 어떤 카페에서 맛보아도 차별이 없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태리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이태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같다. 심지어 얼마 전 밀라노를 방문하고 시내를 걷는데 머느리가 말했다.

"이 집 카페가 맛있어요. 나폴리 사람들이 하는 카페집이

예요." 그래서 마셨더니 역시 다른 집 보다는 훨씬 맛이 있었다. 맛에 대해서는 예민하여 노상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그 맛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나폴리의 카페가 맛있는 것은 물이 좋아서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카페가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을 주는데, 비법은 모르나 그런 식의 맛은 이태리 어느 지역에서도 맛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카페 맛 때문에 위대한 음악가 카루소(Caruso)가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죽을 때도 소렌토로 돌아와야 했는지 모른다.

카페가 유럽에 들어온 후 그

곳은 지식인들의 고급 사교장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나 베니스의 카페 집은 당시의 유명한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괴테, 바그너, 브람스, 스타달, 토마스 만, 임펜등도 이 카페를 들락거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카페 한 잔을 시켜놓고 문학이나 예술, 미술, 철학이나 정치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주인은 자리가 비워져야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참아주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지켜져서 카페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수많은 타협과

사랑과 우정이 피어나기도 했다. 지금 이곳에서 말지 않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편이 치도 안 되는 탐욕 때문이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어우러진 이런 카페에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 그동안 미안했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평화를 이루자, 그동안 당신네 나라를 파괴한 보상으로 차후로 수십 년간 석유와 가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면서 뜨겁게 약속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바초(Bacio)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 까 싶다.

카페 향이 그윽한 300년 전통의 이곳 카페에서...

chiesadroma@daum.net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푸틴을 기소할 수 있을까?

BBC,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살상 따른 국제사회 전쟁범죄 재판 전격 요구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이 방치된 채 거리에 널려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전쟁범죄 발생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또한 관련 증거 수집팀을 꾸렸다. 그렇다면 '전쟁범죄'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말했듯이 '심지어 전쟁에도 규칙이 존재'한다(BBC 법률전문기자 도미닉 카스키아니는 짚어준다('What is a war crime and can Putin be prosecuted?'))

이런 '전쟁의 규칙'은 제네바 협약 및 여러 다른 국제법과 협정에 있다.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도 공격할 수 없다.

또한 대인지뢰나 생화학 무기는 공격범위가 무차별적이거나 가하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 끔찍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부상당한 군인 등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은 전쟁포로로서 권리를 지닌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된다.

국제법상 '집단학살'은 '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집단학살은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한, 분명한 전쟁범죄다.

집단 학살로 기소하기 위해선 그 집단을 전멸하려 했다는 의도를 법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나 약 80만 명이 살해된 사건은 후에 집단 학살로 기소됐

다. 수사관과 언론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들이 고의로 살해된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민간인 손과 발이 묶인 채 총살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잔인한 자"라면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을 법정에 세

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푸틴을 "전쟁범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이러한 공격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아파트, 학교, 병원, 주요 기반시설, 민간 차량, 쇼핑몰, 구급차 등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행위 이전에도 마리우폴 내 병원을

전쟁범죄: 민간인 및 생존필수기반시설 고의적 공격 러시아 침공은 "침략전쟁", 항명에 즉결처형 등 증거

들이다. 러시아군은 3월 초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내 민간인들이 머물러있던 극장건물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가 살해된, 처음으로 확인된 장소로 보인다. 이 극장건물 앞마당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사건

항한 러시아의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집중탄, 즉 폭탄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폭탄이 터져 살상 효과가 큰 폭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내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늘어가고 있다. 영국은 또한 러시아가 일반적인 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막강

승인했는지, 외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관련 보고서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라면서 "어떤 러시아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민간인 2명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병사 중 2명이 항명했으며 결국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있지만 지휘와 통제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소망, 새로운 생명...

(2면에서 계속)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은 황량한 바위언덕의 골짜기였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공포가 느껴지는 거친 십자가와 거기에 못 박힌 피 흘린 흔적이 선명한 예수님의 몸이 주된 그림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조롱하며 비웃는 군중들과 비탄에 빠진 여인들이 주변에 있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그것과 정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특별한 그림이다.

마을 곳곳에 붉은 색으로 칠해진 나무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하듯 곳곳에 뿌려져 있다. 오래 전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주며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현재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명의 이유가 그대로 전해진다. 그 결과가 여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평안함과 경건함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얻은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것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설이나 주장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일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갯세미나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 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 오후 08:45 새벽기도: 오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15 3부 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9:3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3,5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1부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 찬양모임: 오후 8:30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석 경인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45 주일 2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전교인목회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진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양개척교회 담임목사: 유승례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은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 저녁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 새벽기도회: 매일 둘째(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영아살해 허용 발의안 1차 공청회 통과 뉴욕 외 다른 주들에서는 이미 통과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몇 주정부들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동물”보다 더 못한 듯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0년간 통과시킨 무분별한 낙태허용 법안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살인적인 낙태 법안들을 뛰어넘어 “영아살해”를 허용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주(State)들이 있기에 그런 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는 아기들” 이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

갓난아기의 생명, 영아살해를 막아냅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3월 22일 “오바마케어보험”처럼 시민들 도 모르는 상태에서 “Shared Cost” 를 통해 건강보험을 든 시민들이 태아살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SB 245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엔 캘리포니아 국회법사위(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제 1차 공청회에서 AB 2223 “영아살해-Infanticide”를 허용하는 발의안과 또 다른 잔인한 낙태 관련인 AB 2901 발의안들이 수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7대2로 통과되었습니다.

총 9명의 국회법사위(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의원들중 민주당 총 7명 100%가 이 악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2명의 공화당의원들 100%가 악법을 반대하여 7대2로 통과!

반대하려왔던 여성 간증자들은 거짓증언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우리 측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20배가 넘도록 많았으나 결국



동물 죽이는 것은 잔인하고 태아와 갓난아기 죽이는 것은 “선택”?

법사위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AB 2333이 왜 “악” 중의 더 “악법” 인가?

AB 2223 법령: Reproductive health.

AB 2223 발의자: 민주당 소속의 버피 위크스(Buffy Wicks, D-Oakland) 의원이 발의하고 CA 민주당 하원의장인 케빈 멀린(Kevin Mullin, D-South San Francisco)이 함께 co-author.

AB 2223 요점: ‘임신부의 권리(태아, 유아를 없앨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돕는 사람을 추가로 보호할 뿐 아니라 이 법안의 조항에 따라 아이를 상하게 하거나 죽인 혐의를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아살해”는 “정상화” 됨.

AB 2223 관련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1. AB 2223은 낙태를 찬성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없애준다. 이 법안은 법적 처벌 없이 모든 사람이 말기낙태와

영아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린 “개인적인 생식 결정”과 “생식 정의”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궁 안팎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이 발의안을 비난한다.(Attorney and Chief Executive Officer Alexandra Snyder of the Life Legal Defense Foundation).

2.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의원들은 생후 몇 시간, 심지어 일주일 된 유아들의 살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절대로 넘으면 안될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미국시민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든 상관없이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압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악법이다. 우리는 이미 미친 악마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Attorney Matthew McReynolds with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3. AB 2223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출생한 아기까지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법원에서 ‘유산기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이 법안은 태어난 지 몇 주 후 그리고 어쩌면 첫 번째 생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는 아이들의 영아 살해를 합법화

한다. 만약 이 야만적인 법안이 제정된다면 산모나 산후 아기를 죽이는 것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은 없어질 것이다 (Attorney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enter for Law and Policy Dean Broyles).

4. 이 법안은 ‘생식건강’을 가장하여 뱃속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아기를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생명(생명 반대) 법안이 될 것이다. 영아살해를 매우 단순하게 합법화 하는 발의안이다(Attorney Nada Higuera with Tyler & Bursch, LLP).

5. 캘리포니아의 AB 2223는 필라델피아 낙태 의사로 유명했던 커밋 고스넬(Kermit Gosnell)이 낙태실패 후 이미 산채로 태어난 세 명의 아기를 살해하고도 기소 당하지 않은 상황을 합법화 시키게 된다. 유아 살인을 도운 Gosnell과 같은 사람들이 살인자를 수사/조사하려는 경찰을 오히려 거꾸로 고소할 명분을 주게 되는 (매우 황당하고 부정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 것이다(Attorney Susan Arnall, Esq., Director of Outreach, Right to Life League What’s Next?).

“STOP Infanticide 영아살인 반대”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 Tvnext는 6월 22일 March For Life를 미국단체들과 준비 중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교회, 단체들은 연락주세요(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려 쳐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죄목으로 정죄를 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의 권명옥 권사 목사님께 신앙상담으로 문의합니다.

A: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세의 법대로 처리한다면 신명기 13장의 법대로 그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야로 정죄하고 돌려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이 처형을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참 선지자는 패역한 지도자와 백성들에 의해 꼭 순교를 당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죽인 것이 오히려 예수를 더 추앙하게 되고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면 입지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주저하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돌보다 차라리 신명기 21:23절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처형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사람을 죽일 직접적인 권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처형함으로써 예수가 거짓 메시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신명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온 유대민족들에게 드러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낙담하여 흩어질 것이고 자기들의 입지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범으로 로마법 적용, 성전모독죄와 참람죄 적용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예수를 그 당시 로마의 유대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해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다루도록 고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유대민족을 지배하였기에 유대인의 반란을 두려워했고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은 가장 무서운 범죄로 다루었는데 그것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이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목으로 정죄를 당했습니까? 1)성전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고 소란 피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유대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 재판에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게 된 것입니다(막14:55-58).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부수어버리겠다는 것은 성전 모독죄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곧 참람죄로 본 것입니다.

2)참람죄입니다. 산헤드린공회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자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며 참람죄를 지었다며 우리가 다 들었는데 증인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며 사형에 해당된 자로 만장일치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하수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2022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New Life



New Hope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람을 향한 부활신앙공동체”

부활은 부드럽지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하늘과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 지역과 시대와 다음 세대를 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은 “성화장로교회”입니다.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Red means Stop! 할렐루야!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예배를 주를 위해 나를 리드 해주신 집사님은 나에게 미국에서 자동차는 집밖으로 나가려면 꼭 신야 하는 '신발'과 같다고 하시며 미국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다. 지금은 우버, 리프트 등 대체

교통수단이 생겼지만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에 익숙하게 살다온 우리에게 차 구입 전 몇 주는 정말 남의 신발을 빌려 신고 나가는 것처럼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며 고맙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어느덧 미국의 삶이 18년을 채워간다.

미국에서 운전할 하며 감사하게 어떤 사고도 티켓을 받은 일도 없다. 다만 2번의 엄중한 경고를 경찰에게 받았다. 이 두 번의 경고는 모두 스탑(Stop)사인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그렇게 첫 차를 구입하고 교회 반주자로 섬기던 나는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예배를 위해 성경과 찬양악보 폴더를 운전석 옆 좌석에 싣고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금요일 오후 도로는 트래픽이 항상 심했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더욱 심했다. 예배 전 미리 모이는 찬양 팀 연습시간에 늦을까 내 마음도 점점 초조해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들이 가고 있었는데 큰 사거리를 앞에 두고 초록불이 오렌지로 바뀌던 찰나, 내 앞차가 쉼~ 하고 사거리를 넘어갔고 평소라면 당연히 멈추었을 상황이지만 급한 마음에 나도 그 뒤를 따라 양방

향 차들로 가득한 사거리를 통과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찰나, 예엿~ 하는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사이렌과 번쩍거리는 라이트를 켜고 내 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왔다.

나는 도로 한편으로 바로 차를 세우고 너무나 떨었지만 운전면허 책에서 공부했던 경찰을 만나면 응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입으로 영어를 중얼거리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경찰차에서 티켓서철과 불펜을 손에 든 경찰이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을 했다. 하이! 하고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후 경찰은 나에게 네가 레드시그널을 어기고 패스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너무나 미안하다. 면허증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몰랐다. 운전 중 진행 흐름 중에 가끔 오렌지시그널일 때 너무 헛갈린다 라고 얘기

했다. 경찰은 나에게 어디 가는 중이냐고 물었고 나는 옆 좌석 성경과 악보를 가리키며 교회피 아니스트 인데, 교회는 중이라고 재차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경찰은 나에게 "In your country red means stop! Do not this never again" 하며 이번엔 처음이라 티켓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수차례 인사한 후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해 예배를 셉졌다.

다른 한 번의 경고는 집 앞 작은 로컬도로 스탑 사인에서 원, 투, 쓰리의 충분한 카운팅 없이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스탑사인 앞에 멈춰지만 충분히 못한 나의 멈춤은 또 한 번의 강력한 경고대상이 되었다. 다행히 나는 이한 경찰을 만나 경고를 받아 냈지만 충분히 티켓을 받아 벌금과 벌점으로 운전경력에 좋지 않은 기록과 후회를 남길 수

있던 모든 상황은 모두 분명히 Stop을 알고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나의 잘못이었다.

우리는 지금 산 소망의 영광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다.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 크리스천으로 당장 Stop해야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멈춰야 할 때이다. 혹시 오랜 팬데믹과 이런저런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더 멀어져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지기 전에 Stop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붉은 피가 모든 나의 죄들을 이제 Stop하라 하신다. In our life red means Stop! 할렐루야!

songjeo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지년에 인기 설교주제는 부활·종말론

지난 한 해 동안 영예권 예배공동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 주제는 부활·종말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미국 기독교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페이스라이프(faithlife)가 분석한 결과다.



4일 페이스라이프가 발간한 '2021년 찬양·설교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설교' 주제는 부활·종말론이 차지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9만1000여개 설교문 가운데 급격히 증가한 주제어 등을 집계한 결과, 2020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2위는 '은혜'로 전년도보다 4배나 많이 다뤄졌다. '가족·자녀' '창조·경신' '철학' '부흥' 등의 주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페이스라이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 영향 때문으로 해석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에서 '부활 신앙'으로, 때로는 매일 매 순간을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종말론적 신앙'을 설교자들이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순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등이 포함된 에베소서 3장 14~21절이었다. 또 구절에 대한 언급은 전년도보다 26% 늘었다. 또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1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 구절은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이었다.

지년에 인기 예배곡은 '빌드 마이 라이프'

페이스라이프(faithlife)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예배곡은 팻 배럿(Pat Barrett)의 2016년 곡 '빌드 마이 라이프'(Build My Life)였다. 이 곡은 2020년 2위, 2019년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21년 두 번째 인기 음악은 시나크(Sinach)의 2015년 곡 '웨이 메이커'(Way Maker), 3위는 올 선스 & 도터스(All Sons & Daughters)의 '위대하신 주님'(Great Are You Lord)이 차지했다.

4위는 베틀 뮤직과 젠 존슨(Bethel Music/Jenn Johnson)의 듀엣곡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 of God)이, 5위는 매트 레드먼(Matt Redman)의 '일만 가지 이유(10,000 Reasons)'가 올랐다.

이어 크리스 톰린(Chris Tomlin)의 2004년 곡 '위대하신 주(How Great is Our God)'가 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기 상위 20곡의 평균 발매 연도는 11년을 웃돌지만, 상위 10곡은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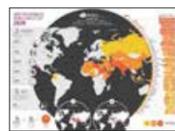
년으로 더 최근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가장 최근 곡은 엘리베이션 워십과 브랜던레이크(Elevation Worship/Brandon Lake)의 2019년 곡 '그레이브즈 인투 가든즈'(Graves into Gardens)이며 9위에 올랐다.

찬송가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How Great Thou Art)이 13위,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Lord I Need You)가 14위,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가 16위, '코너스톤'(Cornerstone)이 17위에 수록됐다.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 나타난 5가지 추세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최근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 나타난 5가지 추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1. 새로운 1위: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감시 목록 1위(또는 그 근처)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아프가니스탄에 빼앗겼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해 북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인들의 사냥터가 됐다. 기독교인들은 만남이나 소풍, 병원 치료를 위해 대중 앞에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지하로 쫓겨났다. 탈레반은 전국 기독교인 명단을 입수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2. 가장 위험한 장소가 더욱 위험해진다: 작년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의 수는 4,761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 숫자는 거의 24% 증가한 5,898개로 늘어났다(실제로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 이 가운데 4,650건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매일 13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셈이다.

3. 끊임없는 예배의 감시: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오랫동안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종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나빠지고 있다. 국가가 승인한 모든 종교 장소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4.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작년 9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승리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2021년 세력을 확장한 유일한 극단주의 단체는 아니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지속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 그룹은 서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이다. 모잠비크와 알사바브는 소말리아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계속 확산 중이다.

5. 예수님을 위해 집에서 쫓겨난 수많은 이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문자 그대로 실랑인이 되었다.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와 같이 극단주의 군대가 활발히 활동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성도들이 머물기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오픈도어는 "올해의 세계 기독교박해국가 목록에는 이처럼 많은 시사점이 있지만 크기가 다섯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절망하게 해서

는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마리안퍼스, 우크라이에 긴급모듈병원 설치

국제구호개발기구 사마리안퍼스(회장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전쟁 피란민과 사상자 수가 급증한 우크라이나에 긴급모듈병원을 급파, 대응에 나섰다. 사마리안퍼스 한국지부 사마리안퍼스코리아(SPK·대표 크리스 위크스)가 5일 밝혔다.



SPK에 따르면 사마리안퍼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르비우시에 60개 병상을 비롯해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약국 등을 갖춘 긴급모듈병원을 구축했다. 르비우시 인근 기차역과 체르니우치시 등에 마련된 간이진료소와 함께 각각 매일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몰도바에서는 160여명의 사마리안퍼스 직원이 현지 3000개 교회와 협력해 피난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미국교회 '피산키' 로 우크라이 돕는다

북미 교회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식 달걀 공예인 피산키를 복사하고 있다. 달걀 판매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



크리스챤티티투데이(CT)는 미국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피산키 행사를 열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식 달걀 공예인 피산키는 복잡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세계적 수공예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피산키는 왁스가 물에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염색하는 '바티기법'을 적용했다. 달걀 껍질에 왁스로 그림을 그린 후 물감에 담가 물을 들인 뒤 달걀에 적당히 열을 가해 왁스를 녹여 제거하면 무늬가 나온다.

피산키 예술가인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조안 브랜더씨는 "피산키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전통적인 예술 형태"라며 "부활절 달걀을 피산키 형태로 만들면서 부활절의 상징이 됐다"고 설명했다.

코네티컷주의 한 교회는 10일 철야기도와 함께 피산키 형태의 부활절 달걀을 제작하기로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교회 공동체도 이날부터 '고통받는 세상을 위한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피산키 달걀을 만든다. 우크라이나가 고통인 매리엔 바치크씨는 자신이 출석하는 뉴저지 세인트존침례교회에서 피산키 워크숍을 열었다. 바치크씨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걀을 장식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난민 이주 잣대'

유럽연합(EU)이 과거 내전으로 유럽에 대거 유입된 시리아 난민과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해 이주 잣대를 들



이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U가 모든 난민에게 동등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럽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리스챤티티투데이(CT)는 최근 보도에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서방 교회가 선별적으로 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CT는 러시아 침공 이후 4300만명의 우크라이나 인구 중 약 400만명은 난민이 됐고 650만명은 국내 실항민이 됐다고 설명한 뒤 내전이 발생한 지 11년 지난 시리아에선 현재 인구 2000만명 중 680만명이 난민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은 국경을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는 데 반해 시리아 사람에 대해선 확실히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의 비노스 라마찬드라씨는 CT를 통해 "유럽은 전쟁, 분쟁, 난민의 곤경을 보도하면서 선별적인 분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라면서 "우크라이나인이 금발에 파란 눈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곤경에 이 같은 연민을 쏟아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마찬드라씨는 IFES(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의 수석 리더다.

CT는 유럽사회와 교회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데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도 분석했다. 시리아와 레바논 북쪽의 기독교회 최고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조지프 카삼씨는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차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면서 "인종차별은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슬람 정세성은 유럽과 기독교인에게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T의 지적대로 EU와 EU 회원국은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인접국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EU도 적극적인 난민 수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로 조사됐다.



미국 CNN은 9일 미국투자은행 제프리스 금융그룹(JEF)과 중국 유아인구연구소 연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에 드는 비용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이탈리아 순이었다.

제프리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보육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최근까지도 대부분 사설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선 18세까지 드는 양육비가 7만5000달러, 대학에 진학할 경우 2만2000달러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육비 절감효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하위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됐다. 제프리스 연구자들은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자료를 조정할 경우,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 가장 비싼 국가가 된다"며 "상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프리스는 부유한 나라의 출생율은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다.

제프리스 연구자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다른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줄어드는 역설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출산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4. 문또라(1876-1971)

문또라는 1876년 8월 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1894년부터 감리교회에 다니다가 1896년에 평양 남산재감리교회에서 윌리엄 A. 노블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때 또라(Dora)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때 김포라였다. 정 씨와 결혼하여 딸 윌라를 낳았다. 윌라는 딸의 세례명이었다. 딸 윌라를 낳았고, 제물포에서 거주하면서 문또라는 남편을 여윌었던 것 같다.

문또라는 1903년에 8살 된 딸 정윌라를 데리고 하와이 이민단에 합류하여 님본 마루에 올랐다. 하와이로 가는 여정에서 딸미로 고생하는 한인들에게 그녀는 전도했다. 그해 9월 28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해 한 해만 16차 선편에 1,133명의 한인노동자가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듬해 1월에 하와이로 온 문홍식을 만나 재혼했고 3남2녀를 낳았다.

30세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마우이섬에 온 최용운이 읊은 시를 서광운이 '미주한인70년사'에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강남에 노든 속에/춘풍우선 만리하니/이진척 기본묘의 슬픔을 뉘 알리오/새 울어 눈물 보지 못하고/꽃 웃어도 소리들지 못하니/좋은 것 뉘가 알고/슬픔인들 뉘가 알랴." 이 감상은 문또라에게도 같았을 것이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지 2달이 채 되지 못한 1903년 11월 3일에 호놀룰루에 있던 한인들이 통역으로 안정수 권사와 우별길을 대표로 뽑고 그곳 미국 북감리교회 감리사 조지 L. 피어슨 목사와 교섭하여 한인감리교 선교회를 조직하고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 집을 얻어 그달 10일에 인천 내리교회 조지 존스 선교사가 파송한 흥승하 전도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 문또라도 함께 하였다.

한인감리교 선교회는 1904년 3월에 엠마 길과 스쿨 길이 만나는 모퉁이에 큰 집을 월세로 얻어 이전하였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존 W. 워드만 감리사가 부임한 이듬해인 1905년 4월에 한인감리교 선교회가 한인감리교회로 승격할 때 문또라도 그 교회에 있었다. 1년 만에 병을 얻어 후

승하가 부득이 귀국하게 되자 그해 7월에 제2대 목사로 부임한 민찬호가 6년간 교회 목회와 문화 활동과 사회활동에 관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는데 문또라는 민찬호의 작은 버팀목이 되었다. 민찬호가 1911년 3월에 남가주 대학 신학부 유학의 길을 떠나자 그달에 홍치범 목사가 제3대 목사로 취임하여 이듬해부터 3년간 약



문또라

1931년 연회에서 전도사로 임명, 한국선교회 조직 조국복음화 도와 1913년 대한부인회 조직 등 한인사회 돕기 활발 하와이역사에 남아

7000달러의 건축비로 예배당 신축을 하였을 때 문또라는 교회를 세우나갔다. 1916년 1월에 제일한인감리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그해 2월에 4대 목사로 송헌주 목사가 부임하여 2년간 사역할 때도 그녀는 그 교회에 있었다. 1918년 3월에 제5대 방화중 목사가 취임한 지 4개월에 한인기독교회가 분열되어 나갔을 때 문또라는 제일한인감리교회를 지켰다. 1920년 4월에 황사용 목사가 제일한인감리교회 제6대 담임자로 부임하여 1922년 1월에 새 교회 헌당예배를 드릴 때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헌당예배를 드린 이듬해인 1923년 10월에 40여 명 남녀노소가 모여 제일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 모여 엠넷청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을 선정했는데 문또라는 교제국에 선임되었고, 딸 정윌라는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 외 임원에는 전도국에 이윤호, 학문국에 정봉만, 인제국에 조제인, 회계국에 흥영태, 통신국에 강영각이었다. 이듬해 10월에 엠넷청년회는 회원 연영을 연장하여 남녀교인 중 15세에서 35세까지로 하였고, 고문부를 따로 두어 청년회 발전에 계책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최두옥, 황혜수와 함께 문또라도 선임되었다. 이해 딸 정윌라는 재무로 선출되

었다. 문또라는 황사용 목사 후임으로 1923년에 부임한 제7대 현 순 목사를 도왔으며, 현 순 목사가 가와이섬으로 파송되면서 1926년에 후임으로 온 제8대 흥한식 목사의 목회에 힘이 되었고, 흥한식 목사가 와이파후교회로 파송되면서 1930년 10월에 드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변홍규 목사가 제9대 담임자로 부임하였다. 그해 11월 6일자 신한민보는 '새 목사 온 후에 열성'이라는 제하의 글을 보도했는데 문또라의 열성도 이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신한민보가 보도한 대로 그해 12월에는 호황에 비바람이 크게 불었지만 교회를 섬기던 문또라의 열성을 꺾지 못했을 것이다.

변홍규 목사가 부임한 이듬해인 1931년 새해부터 호놀룰루에는 동지회와 교인단 간에 감정이 극도에 달한 가운데 고소하여 재판까지 가는 소동 가운데 문또라가 안정송과 함께 그해 하와이 연회에서 전도사(Local Preacher)로 임명받았다. 그래서 변홍규 목사와 함께 문또라는 교인들을 심방하면서 하나 된 동포사랑을 꾀했을 것이다. 그해 9월에 1918년 12월에 분열하여 나간 한인기독교회와 연합 소창회를 개최하여 12년 만에 하나가 된 데에는 문또라의 노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신한민보는 1931년 9월 17일

명받아 교회 살림을 도왔다. 1945년 4월에 임도와 목사가 한국으로 파송되고 그해 7월에 정희조 목사가 제11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교회의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 같다.

문또라는 교회 사역 외에도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했다.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로 오면서 황마리아와 함께 1913년 4월에 호놀룰루에서 대한인부인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하와이 한인부인회 조직의 처음이었다. 자녀의 국어교육을 장려하고, 가정 일용 사물의 일제 물품을 배척하며, 교회와 사회단체를 후원하며, 재난동포구제에 노력하였다. 이듬해 가와이와 골로아에 지회를 설립하여 대한인부인회를 확장하면서 그해 5월에 한국에서 선교하던 노블 선교사를 통해 서간도에서 재난을 당한 동포를 위하여 구제금 300달러를 보냈고, 그로부터 6년간 국내외 재난 동포 구제 사업에 노력하였다. 1918년 6월에 호놀룰루 릴리하여 위치한 구세군 예배당에서 통상회로 모여 한동안 하지 못했던 회무를 처리하고 250달러를 한국 내지의 토지를 구매하여 내지 전도비의 기금을 삼기로 했다. 문또라는 본회 회계를 역임한 바 있었다.

1919년 3월에 삼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인부인회를 해소하고 그해 4월에 대한인부인구제회를 조직하여 각 섬의 부인회를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제일한인감리교회 대동국어학교가 1938년 5월에 방학하면서 교직원과 함께 등록한 학생 52명이 착석한 가운데 방학식을 거행했다. 일동이 조선국가를 부르고 209장 찬송가를 부른 후 문또라가 기도했다. 이후 순서는 성경낭독, 피아노 독주, 대강놀이, 노래, 언문의 제정, 대산놀이, 합창, 독서(국어낭독), 격언암송, 공자역사, 우스운 이야기, 상품수여식, 진급생 광고, 졸업증서 수여, 기부인 광고, 219장 찬송, 축복기도로 이어져 다과회를 한 후 폐회했다. 이날 이영생, 서정호, 차재균이 졸업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됐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달에 나성에서는 '한인방위경위대'가 조직되고, 이듬해 1월에 민간방위회의 의도로 하와이 '한인위원회'가 조직되는 가운데 문또라는 교회 부인회를 동원하여 목요일마다 군복수리 등 잡업을 담당하며 미국적십자사의 일을 도왔다.

1945년 7월 18일자 '국민보'에 의하면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창립 제2회 기념식이 1945년 7월에 호놀룰루에서 있었다. 위원장 김리재의 개회사에 이어 총무 현 순이 '기원과 진흥'이라는 연설을 한 후 임원을 선정했다. 위원장에 현 순, 총무에 홍치범, 조직부장에 박상하, 선전부장에 민찬호, 재무부장에 손창희, 정선부장에 신승노, 기록서기에 정형근, 재무 신세라, 감찰원에 천진화, 김리재 그리고 김영선이었고, 문또라는 사교부장이었다.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래 거의 4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국이 승전하였다. 그날 승전 예배를 드리며 문또라는 온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섰다. 호놀룰루에 있는 모모 인사들이 동포의 사업과 생산력이 박약함을 개탄하고 1924년 11월에 공제사를 조직하고 근검저축, 식산흥업, 기술장려, 직 소개, 환란상구 등을 목적했다. 회장에 문또라가 선임되었고, 그 외 임원으로는 총무에 정봉관, 재무에 김찬제가 있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유지인사들이 1928년 3월에 민족통일을 촉성할 목적으로 대한민족통일촉성회를 조직하였다. 호황의 이승만과 김태석, 학갈라우의 박성환, 마리후의 이만정, 하나의 주봉한, 과야아의 홍치범 등이 축하문을 보낸 가운데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에 조용하, 서기에 최창덕이었고, 위원에 문또라 외에 김영기, 김윤배, 김유실, 김우택, 이상호, 이복기, 이원준, 이태성, 이상신, 류계상, 민찬호, 박상하, 박익인, 신국경, 손덕인, 안현경, 안원규, 양유찬, 정인수, 정운서, 조광원, 조병요, 황혜수, 흥한식, 김경준, 정원명이 있었다.

1930년 10월에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국제적인 범태평양 여자대회에 한국인으로 이원순이 관여했는데 문또라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또라(아랫줄 가운데) 가족

에 '하와이-양 교회 처음으로 연합 소창회'라는 제하의 글을 기꺼이 보도했다.

문또라는 1932년에 한국선교회를 조직하였다. 등록한 회원들이 낸 월정헌금을 모아 한국에 있는 가난한 교회



목회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데 앞장섰다.

변홍규 목사가 1933년 만주선교를 위해 떠나자 임도와 목사가 1933년 7월에 제10대 제일한인감리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해 9월에 본 교회에서 계속회가 개최되었을 때 문또라는 박종수, 김이제, 송치순, 안정송, 송아더와 함께 전도사로 재임명되어 임도회 목사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1937년 12월 계속회에서 문또라는 안원규, 김보배, 박에스터, 권도인, 황사근, 이정두, 김신일, 이금우, 박현렌과 함께 제일한인감리교회 유사로 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고령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영양진도: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 예배: 구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 Tel: (702) 423-9700, Cell: (213) 703-8861 5502 Old Bethel Rd. Cresskew, FL 323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 48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얼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arn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진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7) - "하나님의 아들들"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1-2).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표현이 담긴 창세기 6:1-4은 창세기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손꼽히는데, 이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노력은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을 미리 밝혀 둔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 논의 되 왔는지를 살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겨져 그 내용을 크게 세 관점으로 분류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천사라는 해석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는 견해다. 이 해석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예레미야 23:18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라 바꿔 쓴 것이 그 시작이다. 칠십인역도

는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이 주제와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의 장점은 비신화화에 있다. 수메르의 길가메쉬(Gilgamesh)처럼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고대의 세계관과 달리 창세기6:1-4은 오직 창조주와 피조물인 천사, 인간, 세상이 있을 뿐임을 말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천사의 타락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도 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유6).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단점은 없을까? 물론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생육의 기능을 부여하셨다는 근거를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마22:30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6 본문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실해갔다는 해석이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교부들은 물론 루터, 칼빈 등 개혁시대 주석가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 입장의 장점은 창세기4-5장의 연장 선상에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주며 그 다음 대목인 "노아의 족보"(창6:9-9:29)에서 다루지는 홍수 심판이 왜 가인혈통만 아니라 노아가족을 제외한 셋의 가문에게도 내려져야 했는지를 살필 토대



나람-신 승전비 상단부분(프랑스 Louvre 박물관 소장, 출처: Rama, Cc-by-sa-2.0-fr).

3. 고대 군주, 왕조의 통치자로 해석

그래서 셋째 입장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군주, 왕조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다. 유대주석가들에 의해 거론된 바 있는 이 입장은 20세기에 접어들어 고고학 발굴을 통해 고대문명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서 힘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입장보다도 다음 본문을 잘 설명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2). 아울러 이 죄상의 전모를 인간의 영역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비신화학적 취지를 잘 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①천사 ②사람 ③군주 3가지 해석... 결론은 "사람 욕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죽을 자를 살리심... 예수를 바라고 흠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쁨 대야

이 문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옮겨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두 문헌 모두 주전 3-1세기를 배경으로 한 것임으로 우리가 살펴볼려는 세 견해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견해가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 다른 곳에서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욥기1:6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동일한 표현이 욥기2:6에 되풀이되고, 다니엘3:25에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람어로 적혀있다: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반면 시편29:1 및 89:6에서 한글 개역개정이 각각 "권능 있는 자들" 그리고 "신들"이라 옮긴 문구

이 욕신이 뭐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6:3). 과연 천사가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천사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본문은 그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 즉, 사태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들이 "사람"이라 보게 하는 근거를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사람이라는 견해

따라서 이런 첫 견해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라는 견해다. 이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서 경건한 삶을 이어간 혈통이며, 그에 반해 "사람의 딸들"은 불경한 가인의 후손들일 것이라는 가정이 세워진다. 즉,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혼인을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건함을 상

를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비신화적 작업을 한 차원 더하는 장점 역시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도 단점이 있다. 본문 1절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 "사람" (hā'ādām)은 전 인류를 아우르는 집합명사로 해석되는데, 이 단어가 동일한 형태로 2절에도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서 2절의 "사람의 딸들"은 전 인류를 아우르는 집합명사로서의 "사람"의 "딸들"로 봐야 문법상 맞는 것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딸들이라는 소집합군으로 한정지어 해석하는 것은 문법을 간과할 때에만 가능하다. 공식을 뒤집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후예로, 또 "사람의 딸들"을 셋의 후예로 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

그런데 이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고대근동의 왕들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의 논리절차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본문의 "하나님" (hā'elohīm)은 문맥에 따라 '신들'로도 번역할 수 있는 명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예: 렘11:12; 시136:2; 대상2:4).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의 아들들'로도 번역이 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의 아들들" (bənē-)은 '...에 속한 자들'이란 뜻을 갖는다. 그래서 한글개역개정에는 시편 11:4의 '아들의 아들들' (bənē'ādām)을 "인생"이라 옮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의 아들들' 또는 '신들'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구약의 맥락에서 다른 '신들'은 참 신이 아닌, 사람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가리킬 뿐이다.

(9면으로 계속)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엔데믹 시대,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삼상 2:12).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지만 다음세대 교육에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던 엘리 제사장은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지만, 다음세대 교육에는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삼상8:3).

엔데믹을 향해 가는 요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뒤져질세라 눈에 보이는 성공을 목표로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세대를 제쳐 놓고 회사일, 집안일, 교회일로 다시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계수는 우리의 다음세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모와 교사들은 다음세대에 대해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해답은 시편 127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음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평생 기업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시127:3). 만약 어떤 왕이 왕자와 공주를 잘 가르칠 사람을 유모로 임명하여 그에게 양육을 위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유모는 왕의 자녀들에게 유모의 뜻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왕의 뜻을 가르쳐야 할까요? 다음세대는 부모나 교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둘째, 다음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삼급이로다"(시127:3).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다음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된 우리는 항상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버거운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저주와 한탄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아람은 형에게 가서 자신의 다음세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아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창33:5). 우리의 다음세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다음세대는 화살과 같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시127:4).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의 인생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함께 설정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장사의 손에 들려 있는 화살이 쏘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꽃피듯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공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엔데믹과 빠르게 변화하는 AI시대 속에 우리는 '다음세대'라는 화살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향해 더욱 분별하여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성품을 닮은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교회와 가정 속에 다음세대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달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5부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213)381-443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er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20 영어교: 오전 1:20 영어권(중소·KDC, 평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562)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714)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다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jpc.org 170 Birr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베델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hel@d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Fullerton,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숙 목사 (LA북캘리포니아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리더 3. 가정사역자 4. 말용사역 5. 네트워킹사역 www.elpisfamily.org, Tel:(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끼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 Tel:(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장년)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분당) 주일4부예배: 오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분당) Tel: 310-370-5500, www.lo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성장이 임어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cbkc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예수, 버림받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들은 비록 짧지만 태산보다 무겁고 심해보다 깊으며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혹독하다. 그리고, 그 짧은 주님의 말씀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 주님의 말씀들 중에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듣는 사람에게 따라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우선 그 당시 주님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라며 하나님을

불렀는데, 군중들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다(마 27:46-49).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탈무드의 전승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는 말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다르게 기록했다. 당시 사회는 네 종류의 글자와 언어가 사용되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었던 패에는 “히브리와 로마(라틴어)와 헬라 말”(요19:19)로 기록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공용 언어는 아랍어였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 인하여 예수님의 뜻은 외침은 각자의 언어적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아랍어)라며 외쳤다고 적었고, 마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히브리어)라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다. 한글성경은 둘 다 “엘리 엘리”로 통일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와 영어 번역본에서는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은 이 글의 후반부까지 잠시 묶어두자.

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소리쳤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로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의 생애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가졌고 목회도 하였다. 그는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메시아로서 실패했다고 썼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다시 의학을 공부하여서 의학박사가 되었으며 의료선교사로 헌신하였다. 그 때

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봉사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전 삶을 아프리카에 바쳤다. 아마 슈바이처 박사는 젊어서 그 논문을 썼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회심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둘 다를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인간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외친 소리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외친 비명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아셨고, 그 시가 자신의 십자가 고통을 예언하는 시임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에 마태는 구약 학자였기 때문

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소리치셨다면 다스 해석적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감각으로 느꼈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절망감과 고독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

실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다. 실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통과 저주 속에 버림 당하셨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이고, 그 저주는 내가 치러야 했던 저주였고, 그 비명은 내가 질러야 했던 비명 소리였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취함을 얻었다.

dik0184@yahoo.com



위 왼쪽부터 김빅토르, 김수아, 김형현, 남은우, 노세은, 이서희, 이예원, 정성환, 정요한, 홍석규.

제1회 선교사 자녀 장학생 선발

포코노한인장로교회, 9개국 10명에 5천불 수여

포코노한인장로교회(바울선교사)가 COVID-19 어려운 시기에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가정을 돕자는 취지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은 선교 현지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발해 지난 3월 15일 각 장학생에게 500달러씩 지급했다.

선발된 9개국 10명의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빅토르(우크라이나), 김수아(루마니아), 김형현(말레이시아), 남은우(필리핀), 노세은(불가리아), 이서희(몽골), 이예원(말레이시아), 정성환(캄보디아), 정요한(마다가스카르), 홍석규(남아프리카). (기사제공: 포코노한인장로교회)

정 목사는 이어 “대학 청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주역들이 세워질 길 소망한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향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는 주일에는 UPC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24시간 사역하는 아델포스홀과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빈야드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모임들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운타운 캠퍼스 주일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문의: (206)335-6008 (기사제공: 시애틀형제교회)

UW 인근 UPC 교회로 이전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다운타운 캠퍼스(담임 정찬길 목사)가 17일(부활주일)부터 워싱턴대학교 인근, UPC(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4540 15th Ave NE, Seattle, WA 98105)로 예배당을 이전한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UPC는 600명 수용 분당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

젊은 청년세대가 주축인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기간을 보냈지만 최근 예배 출

석인원이 200명을 넘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출석 성도의 60%까지 직장인들과 청년부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학생중심 교회에서 성인중심의 교회로 변모하고 있다.

정찬길 목사는 “시애틀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는 새로운 예배 장소인 UPC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젊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합치게 전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말씀과망

(8면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창세기6:2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에게 의해 ‘신’이라 불려지는 자들을 뜻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논리를 잘 주장했던 M. 클라인(Meredith G. Kline)은 창세기6:2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성왕’(divine kings)을 뜻한다고 결론짓는 바 있다.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추앙된 왕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 필자는 대표적인 예로 나람-신(Naram-Sin)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전 2250년경 아카드 제국(Akkadian Empire)의 제 4대 왕으로 등극한 그는 ‘사방의 왕’(King of the Four Quarters), ‘만왕’(King of the Universe)이란 존호를 취했고, 급기야는 ‘아카드의 신’(God of Akkad)이란 칭호를 더해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스스로를 신격화한 첫 통치자가 됐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신’을 뜻하는 기호 *를 사용해 *Naram *Sin으로 표기된다. 한편 1898년 수산(Susa)에서 발견된 승전비에는 나람-신이 군대를 이끌고 툴루비(Tullubi) 부족을 무찌르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신을 상징하는 양각 뿔이 돋은 철모를 쓰고 사

람의 2배는 되는 큰 키의 용사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음이다. 이렇게 ‘신’의 형상을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 있는 나람-신은 이 기념비를 통해 무려 4천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

이런 역사의 장면들을 마주할 때 다음 창세기 본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창6:4).

앞에서 살핀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해석의 틀 역시 한계가 없지는 않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r’ h) 자기들이 좋아하는(twb)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lqh)”(창6:2). 이 본문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취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고대근동의 왕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여자들을 취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한계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세 해석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을 뿐

이다. 그런데 그 중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 눈으로 보기에(r’ h) 좋은(twb) 것을 취한(lqh) 사람의 욕심이 조래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r’ h) 먹음직(twb)도 하고... 그 열매를 따(lqh)먹고...”(창3:6). 에덴의 상실을 경험하고도 그 죄의 길에 다시 돌아가 서는 인간(롬 2:1-16).

그러나 “반드시” 죽어야 할(창 2:17)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거두지 않은 신 하나님의 은혜는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을 보존시키셨고(창6:8, 18-20),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새생명을 얻게 하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골2:15)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입으로 얻으시며(히1:4)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히1:3). 그 예수를 바라고(r’ h) 흠모하며(twb) 사는 것이 그 유행을 받을(lqh)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야겠다.

spark4@gordonconwell.edu

기도회로 건축더미에 불붙이기

본사방문

이상목 목사(펜실베이니아 이어리한인장로교회) 장규준 목사(다음세대 사역)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성을 깨우는 집회를 주 사역으로 하는 이상목 목사(펜실베이니아 이어리한인장로교회)와 이 목사와 함께 팀 사역을 하는 장규준 목사(다음세대 사역)가 지난 6일 뉴욕 본사를 방문했다. 집회를 통해 성령사역을 하는 이상목 목사는 뉴욕 지역 사역을 위해 장규준 목사를 만나 펜데믹으로 위축됐던 사역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상목 목사는 집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며 목회자 모임에서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첫째, 기도회에 불붙이기다. 기도 안 해도 단에 설수 있지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시대는 극단적이 되는 것 같다. 더욱 악해지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시대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시대적 경계라고 느낀다. 둘째는 성령사역이



이상목 목사(왼쪽)와 장규준 목사

적 상담, 성경공부 등으로 이어진다. 줌화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부분, 성경적 부분은 직접 상담

게 하셨다”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다른 팀과 함께 준비”라고 밝혔다.

목회자, 사모, 평신도지도자 대상 지속적 집회

다. 이어리한인장로교회 부임 후 3년간 말씀, 기도, 찬양으로 예배를 3-4시간씩 했다. 어느 날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사건을 교회에 임하게 하셨다. 그것을 터닝포인트로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 성경과 함께 교회, 이 사역을 모든 집회에서 하고 있다. 이 작은 불이 교회마다 불기를 간구하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 사역에서 특이한 것은 집회에서 은혜 받은 후 후속조치가 있다는 것. 개인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장규준 목사는 “다음세대와 사역자 부모세대를 깨우고 일으키는데 집회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고, 뉴욕에서의 활동은 제가 팀을 구성해 집회부터 사후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장 목사는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상황과 고민, 영적 문제를 겪었고, 또 주변에서 보기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

도지도자를 대상으로 “침과 영성” 목회자 “찬양과 영성회복” “목회자 성령컨퍼런스”, 선교사 영성 컨퍼런스” 등 1년에 4-5회 집회를 열었다. 올해는 4월말 뉴욕한기부 월례기도회, 뉴저지 아틀랜틱 시티 사랑의집, 가을에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차세대 지도자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연락처: 이상목 목사(814-602-5126), 장규준 목사(646-266-0039)

(유원정 기자)

부활절설교

(3면에서 계속)

또한 발꿈치를 물어뜯는 사탄의 공격으로 당하실 새 아담의 고난도 예언하셨습니다(사 53장).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은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그의 아들이 새 아담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마1:18-25, 눅1:26-38). 예수님은 새 아담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함으로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적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아담의 죄값을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내리고(눅23:45),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셨습니다(마27:51-53). 죄의

짐을 벗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어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사는 것입니다(렘2:37). 새 하늘과 새 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고백을 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마16:16, 행9:20-23). 또한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막10:45).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롬13:14, 갈3:27, 엡4:24, 골3:10). 만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고전15:19).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백성이 되고 세례를 베푸는 왕 같은 제사장(벧전2:9)이 되고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새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의 말미암았으니 죽는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고전15:21-22).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던 처음 청취자들이 기운 삼아 말씀을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kangkibong@hot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부설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33기가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식사)부터 시작된다. 개강예배는 4월 25일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드리며 등록비는 100달러. 종강 후 단기선교는 10월중 진행되며 1개월 이상 체류자에게는 항공료를 후원한다.

▲문의: (917)963-9356 김경열 훈련원장 (646)220-8222 이형근 사무총장

뉴저지한인목사회 목회자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4월 19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자훈련원장).

▲문의: (201)965-9876 오범준 총무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2차 연례모임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Korean Diaspora Institute, 소장 박석현 목사)가 주최하는 2차 연례모임이 6월 7일(화) 오후 3시부터 9일(목) 오후 2시까지 매릴랜드 Sandy Cove Ministries에서 열린다. 주강사는 권수경 교수(고신대 교수)와 민병갑 교수(CUNY). 참가비는 없다.

▲문의: (408) 712-9876, (440) 591-4333

IT 강좌

비영리기관 네이버플러스 재단이 제공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기초강좌가 5월 7일(토) 오전 10시(EST)부터 줌으로 개최된다. 5월 28일까지 4주간 매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열리며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25달러(보조 가능).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974927245>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의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5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에서 열린다. 인도자는 조윤희 강사. 커피브레이크는 북미주개척장로교회(CRCNA) 교단 사역이지만 초교파로 진행돼왔으며 팬데믹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문의: (703)943-0496 김명진 사모, mjksarang@gmail.com

Streamside Ministry 청소년 집회

Streamside Ministry가 주최하는 청소년 집회가 4월 22일(금) 오후 7시 뉴저지(201 Degraw Ave. Teaneck)에서 열린다. “ALIVE”(단1:8) 주제로 강사는 Rev. Joon Kim(Epic Church International). 주회 측은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청소년 기도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의: (201)696-8040 정인식 목사, Info@thestreamside.org



뉴욕에람교회 임·취임식을 마치고 참석 목회자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벨세메스로 가는 길” ...임직자의 길

뉴욕에람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취임식

뉴욕에람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취임식이 4월 9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장로 김경두 △안수집사 이봉창 임희수 △권사 김미령 이영숙 김순희 최유정 등 총 7명이 임·취임했다.

임·취임식은 이영희 담임목사 인도로 찬양 김경길 목사(뉴욕엘피스장로교회), 기도 박응수 목사(UPCA 동부노회장, 할렐루야교회), 찬양 쉬림찬양단, 설교 이영희 목사, 서약, 안수, 약수례, 기도, 공포, 임취임패 수여, 선물증정, 권면 신헌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뉴욕성신교회), 축사 흥민 목사(동부노회 서기, 예수가족교회) 김경렬 목사(한기부회장, 뉴욕영안교회), 축가 이영복 장로, 답사 김경두 장로, 축도 안창의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하크네시야교회 원로), 만찬기도 김정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희 목사는 UPCA 증경총회장 황의춘 목사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해 자신이 설교하게 됐다

며, “벨세메스로 가는 길”(삼상 6:10-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은 임직자를 의미하는 암소에 조짐을 맞추겠다며 ‘1) 집을 저 본적 없는 암소가 하나님의 법계를 실은 수레를 끌도록 선택 받았다. 2)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 임직자들도 방황하지 말고 똑바로 가야한다. 3) 암소는 모든 것을 제한 받고 울면서 갔다(12절). 임직자들도 내 권리 내 자유를 다 행사할 수 없다. 4) 암소는 마지막에 변제물로 바쳐졌다. 주님의 일은 나를 죽여 제물로 삼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경두 장로는 “하나님과 교우들, 담임목사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힘주심을 믿고 가겠으니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원정 기자)



고 장영춘 목사 2주기 추모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살아서 말하고 있다”

고 장영춘 목사 2주기 추모예배

퀸즈장로교회 원로이며 전 본지 발행인 고 장영춘 목사 2주기 추모예배가 4월 8일 오전 7시 15분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렸다. 이날 장미는 사모와 김성국 목사를 비롯해 퀸즈장로교회 장로들과 교역자들이 참석했다.

장영춘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본지 발행인) 인도로 기도 허경화 장로, 특송 최진식 목사, 설교 김성국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본문으로 “그가 죽었으나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 장영춘 목사의 믿음 이야기를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셨던 목사님은 죽으셨으나 그 믿음은 현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요 교육부의 모습이며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선교”라며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살아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삶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설교 마무리에는 두세 명씩을 짝을 지어 장 목사와의 추억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라흥채 목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계20:1-6 성경 전체의 결론”

라흥채 목사의 다니엘 요한계시록 1기 성경공부 개강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과 회)의 다니엘 요한계시록 1기 성경공부가 지난 5일 오후 2시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시작했다.

5월 17일까지 7주간에 걸쳐 오후반(매주 화요일 오후 2-5시)과 저녁반(매주 목요일 오후 7-10시)을 진행한다. 목사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경공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첫날 라흥채 목사는 쉽게 읽는 방법으로 1)성경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의 맥을 찾아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2)창세기 1, 2, 3장을 읽고 성경의 시작을 알아야 한다 3)BC 900년-BC 67년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 시대를 알아야 한다. 4)다니엘서를 읽고 70이레 도표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의 도표를 이해해야 한다 5)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예수님의 계시 6)계20:1-6이 성경 전체의 결론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라 목사는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성경전체의 말씀이 이뤄짐을 알아야 한다”며 “천국은 영원히 살아가는 믿는 자의 축복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유희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끝이며 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역설했다.

지질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전 찾는 회사에서 일했던 라흥채 목사는 유전 찾는 방법을 성경읽기에 적용시켜 도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분열왕국시대(왕상9:4-6)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도표를 보며 설명했다.

성경공부는 전반기 다니엘서, 후반기 요한계시록으로 나

눠 진행된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라흥채 목사의 저서 “성경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는 법”, “다니엘 알면 미래가 보인다”,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교재로 배부했다.

▲연락처: (917)968-1024, 588-2934.

(유원정 기자)

신임회장 정광희 목사, 수석부회장 이규섭 목사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2022년 정기총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 동문회 2022년 정기총회가 4월 4일 오전 뉴저지영광장로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동문회는 팬데믹으로 지난해 줌화상으로 열린 후 대면으로 3년 만에 열렸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수석부회장 정광희 목사(82회)를 회장으로, 수석부회장으로 이규섭 목사(제자삼배교회, 79회)를 선출했다.

부회장은 장의한 목사(뉴햄프셔장로교회, 79회)를 유임시켰으며, 총무 이윤석 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 80회)를 새로운 부회장으로 공천했다. 총무는 정주성 목사(나무교회, 86회)를 선출했다.

직전 회장 변창국 목사(뉴욕해피교회, 81회)는 “코비드 기간 동안 동문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신임회장 정광희 목사는 “동문회가 동문들이 서로 사랑하고 뭉쳐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목회의 새로운

힘을 제공하는 동문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감사패가 증정됐다. 변창국 목사는 직전 회장 구자범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정광희 목사도 직전 회장 변창국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정광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규섭 목사, 성경봉독 김홍선 목사(89회), 특송 이계자 사모(뉴욕광영교회), 설교 변창국 목사(“너희를 보내노라”, 요20:19-23), 헌금기도 이상만 목사(88회), 광고 이윤석 목사(80회), 직전 회장에 감사패 증정, 축도 조영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광고를 통해 동문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가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에 출마함을 알렸으며 2021년 2월 은퇴해(30년 재직) 명예교수가 된 박용규 교수가 참석해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날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가 동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총신대신대원 미주동부동문회 2022년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임원단 더나눔하우스 방문

지난 1일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 임원단이 한인노숙인 쉼터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했다. 이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며 쉼터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7일에는 뉴욕바울선교회 대표 김성구장로(가나안제과 사장)가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1500달러를 쉼터구입 후 원금으로 전달했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시가 사이구30 캠페인 전개한다는 기자회견을 LA시청에서 열었다. 사진 왼쪽 아래 네모안은 8일 오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조찬기도회 모습

LA시 사이구30 캠페인 전개

4.29폭동 30주년...세미나 추모예배 및 행사

LA시가 4.29폭동 30주년을 맞아 한인 및 주류 커뮤니티와 함께 폭동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세미나와 추모예배, 추모행사 등을 포함하는 '사이구 30 캠페인'(SAIGU 30 Campaign)을 전개한다.

5일 LA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명원식 파바 회장과 페이스(FACE) 임혜빈 회장 등 한인과 주류 정치·커뮤니티 인사들과 함께 '사이구30 캠페인'에 대해 소개한 후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4.29폭동과 같은 동일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대화와 화합의 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4.29 폭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4.29폭동의 피해와 상처는 남아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LA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아직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30년 전 과거와 같은 실수는 LA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29 폭동 캠페인 행사 공동의장인 임혜빈 FACE 대표는 폭동 당시 3천6백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3천 곳 이상의 비즈니스가 파괴되면서 전체 재산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폭동으로 파괴된 비즈니스 중 1만2천명 한인업주들이다. 또한 1만2천 명 이상이 체포됐고, 63명이 사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날 비영리단체 오퍼레이션 호프(Operation Hope)커뮤니티 대사 나지 알리(Najee Ali)는 30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흑인사회를 대표해 사과했다.

FACE는 4월 한 달 동안 4·29에 대한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과 함께 LA시 문화부의 후원으로 당시 상황을 담은 다양한 종류의 작품전시회를 사우스LA에 있는 레이머트 플라자파크에서 갖는다. 29일 오후 6시에는 Tapestry교회에서 폐막식 행사를 갖게 된다.

한편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FACE·대표 임혜빈)이 주최하는 '사이구(Saigu)' 캠페인의 일환인 조찬기도회가 8일 오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에서 열렸다.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흑인 교회 레이디 템플 AME의 마크 윌러 목사, 연합감리교회(담임 트 하기가 감독, NBC-TV 앵커이자 부목사인 테드 찬, LA카운티정신건강국 USC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풀러신학교 심포지움 1, 2세대 케이스터디도 진행

풀러신학교(총장 마크래버튼 박사) 코리안센터(디렉터 김창환 박사)가 주최한 한인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심포지움이 4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움은 나스칼리지 송남순 교수, 웨스턴신학교 에녹 완 교수, 에모리대학교 헬렌 김 교수,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최희안 교수, 하트포드신학교 앨리스 노튼 교수 등 북미의 다양한 지역 신학자들이 모여 역사적, 성경적, 민족학적, 사회학적 관점으로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 형성과 선교방향에 대해 논했다.

심포지움은 마크 래버튼 총장의 환영인사와 강준민 목사의 설교에 이어, 송남순 박사가 "북미한인교회에서 밭짓기와 기독교 교육", 에녹 완 박사가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선교: 상황적 접근 제안", 헬렌 김 박사가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전쟁", 최희안 박사가 "한인 이민 정체성과 아시아 이민자의 지위 사이에서: 한인이민교회의 리더

십 재구축", 앨리스 노튼박사가 "이민과 미국의 회중: 이 시대의 동향과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성경과 선교 역사의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 이민 교회의 여성 △이민 교회의 선교와 사역 △이민 교회의 2세대 교육 및 제자 양육이란 주제로 다양한 선택강의시간이 마련됐으며, 첫날 2세대의 케이스터디를 했다.

케이스터디는 다니엘 리 박사(풀러신학교)를 패널의장으로, 샘고 목사(실사이드 LA), 벤자민 신 박사(뉴라이프비전교회), 케빈 리 목사(새들백교회)가 패널로 참여했다.

둘째 날 이민 1세대의 케이스터디는 페넬로피로 진행됐으며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가 패널의장으로, 김병주 목사(시카고 갈보리교회),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 이정영 목사(LA온누리교회)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가 주최한 한인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심포지움에서 이민 1세대의 케이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우측 아래 타원안은 이민교회의 선교사역이라는 주제강의가 열리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월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위해 3천불 지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월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2일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4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3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도회에서는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는 '아름다운 동행(히12:14)'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회에서 신영세 부이사장은 한국의 새정부에 잘 정착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이 최고로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돼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기도회는 변송덕 부회장의 대표기도, 전재룡 홍보부장의

특별연주에 이어 김경섭 목사의 설교와 합심기도, 윤우경 이사장의 교계소식과 광고로 이어졌다.

연합회는 조찬기도회에서 지난 3월 13일 평신도 신앙양상을 위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에 대해 보고하고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돕기와 남가주 교계 신문 후원에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우크라이나돕기운동본부에 2000달러, OC교계 연합단체들과 선미니스트리에 1000달러 등 총 3000달러를 지원한다.

신용 회장은 "슬픔에 잠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난민들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기독교인사들을 도울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8시 애너하임에 위치한 에반젤리아대학교 2층 채플실에서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조찬기도회 설교는 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사우스베이목사회 4월 정기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바울의 믿음과 용기 본받아 달려가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4월 정기예배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에서는 4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오전 8시 뉴크리에 이션교회(김광준 목사)에서 윤목 목사 인도로 김우준 목사(토랜스조은 교회)가 대표 기도하고, 김진주 목사(미주서부장로교회)가 '과정의 기쁨(빌3:12-1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주 목사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신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사랑은 현실을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사도바울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었기에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오늘날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올지라도 바울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과 사명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합심기도 시간엔 사우스베이 복음화를 위하여 스코국의 정치적 안정과 복음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호민 목사(가디나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5월 정기예배는 오는 5월 11일(수) 오전 8시 토랜스선한목자교회(이호민 목사)에서 갖는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굿네이버스커피, 우크라이나 돕기 후원금 전달

어바인 소재 스페셜티 커피 전문업체 '굿네이버스커피'가 구호단체 굿네이버스 USA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평화프로젝트(Peace Project)' 캠페인을 진행해 4월 8일 1차 후원금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커피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피스블렌드(Peace Blend) 커피원두 등 관련 제품을 웹사이트(https://goodneighborscoffee.com/collections/coffee-for-

ukraine)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굿네이버스 피스블렌드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뉴저지주 뉴리교회(마크조 목사),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 시드교회(권혁빈 목사) 등의 교회와 단체도 대량 구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굿네이버스커피 판매수익금의 4월말까지 우크라이나 국민

과 피난 중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한편 굿네이버스USA, 주미우크라이나 대사관, 선교사들과 접촉해 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과 전달 방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전미 콜드브루 챔피언인 조엘 오 대표가 설립한 굿네이버스커피는 커피판매 및 카페운영 등을 통해 구호단체 굿네이버스를 후원하고 있다.

▲문의: 류동민 대표, richard@goodneighborscoffee.com (기사제공: 굿네이버스USA)

서부교계 게시판

"부활절의 기쁨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부활의 기쁨을 우크라이나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 교회나 개인이 부활절 헌금을 미리 보내거나 작성하면 우크라이나 군종목사들과 우크라이나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부활절 헌금을 보내는 캠페인이다. 개인, 작은 단체와 교회들도 우크라이나 돕기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323)578-7933

소망소사이어터 구술자서전 출간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가 한인 1세대의 인생이야기를 담은 구술 자서전 출간을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구술 자서전은 지난 삶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전문작가에게 들려줘 책으로 출판하는 프로젝트로 평생회원, 일반회원, 우물회원 등을 대상으로 21명을 선정해 올 10월 첫 출간을 목표로 하며 매년 출간할 예정이다. 자서전 출간자는 500달러의 비용 및 기부금을 후원한다.

▲문의: (562) 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4월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허윤준 목사(뉴욕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 문의: (562)677-7777

올림픽지역 부활절연합예배

워싱턴주 올림픽 지역 부활절연합예배가 17일(주일) 오전 6시 새시온침례교회(담임 정종교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60)456-0191

산호세교회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

산호세교회협의회(회장 곽정빈 목사) 주최 부활절 연합예배가 17일(주일) 오전 6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박성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408)263-5100

LA동부교회연합회 부활절연합예배

LA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우영화 목사) 주최 부활절연합예배가 17일(주일) 오전 5시30분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09)590-3722

제3회 메시아양상블 정기공연

메시아솔리스트양상블(대표 이사회)가 주최하는 제3회 메시아양상블 정기공연이 17일(주일) 오후 7시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657-6571



GIFT상담치유연구원 제1차 '샬렘' 힐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GIFT상담치유연구원 제1차 '샬렘' 힐링 세미나

GIFT상담치유연구원(공동대표 리더아전, 조셉전 박사)이 주관한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샬렘 힐링 세미나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세미나에는 28명의 사역자/사모들이 참석했고 15명의 봉사자들이 섬겼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자기 내면의 탐색과 치유, 변화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성숙을 이룬다"는 훈련 목표로 개최됐다.

펜데믹으로 더 힘들 수 있는 목회자 부부에게 새 힘을 북돋아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 경험, 전문지식과 성서적 진리, 영성을 통합한 강의와 심리적 및 정서적 상담기초기술 등도 배우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힐링을 얻는 시간이었다.

특히 특별히 북가주 뉴비전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다 은퇴한 이치훈 목사의 간증은 참석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힐링을 줬다. 세미나 중 찬양은 'One Heart Ministry'(대표 피터 박 목사)가 담당했고 모든 경비는 GIFT상담치유연구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됐다.

GIFT상담치유 연구원은 GIFT 전문상담소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새사람' 전인치유세미나(11차)를 개최해왔다. 이번에 처음 샬렘 힐링 세미나를 열었으며 목회자를 위한 2차 세미나도 금년 가을경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리더아전 임상심리학 박사(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와 조셉전 의학박사(남가주사랑의교회장로, MIT대학과 UCLA의대졸업, 트리니티와 탈봇 신학교에서 신학과 영성 전공).

▲문의: (714)522-4438(GIFT)/GIFTSHALEM@GMAIL.COM

(기사제공: GIFT상담치유연구원)



어바인 소재 스페셜티 커피 전문업체 굿네이버스커피가 구호단체 굿네이버스 USA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1차 후원금을 전달 했다.

“주일예배 설교시간 40분미만 적당”

응답자 80%... “영상예배 활성화로 짧은 설교 선호” 분석

기독교인 10명 중 8명은 주일예배 설교 시간으로 40분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886명에게 ‘주일예배 시 가장 적당한 설교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구독자에게 약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46%는 ‘30-39분’이라고 답했고 ‘29분 이하’(36%) ‘40-49분’(11%)이 뒤를 이었다. ‘50-59분’과 ‘1시간 이상’은 각각 4%, 3%였다.

지용근 대표는 7일 “전체 응답자의 82%가 39분 이하로 응답했고 ‘50분 이상’이라 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설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참지 못하는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영상예배가 활성화된 이후 교인들이 짧은 설교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A교회 목사는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집중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걸 경험했다”면서 “실제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설교 시간을 줄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가 약식이기는 하지만 설교 시간에 대한 교인들의 달라진 인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눈여겨볼 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예배학 분야 권위자인 한일장신대 정장복 명예총장은 “잡다한 말을 많이 쓸수록 설교는 길어진다. 설교 시간이 짧다고 성의 없는 게 아니다”며 “뽕뽕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씀의 뜻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전달하는 데는 25-30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교가 15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다. 재미있는 얘이지만 귀담아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혁신 해법은 ‘성경’ ”

미래목회포럼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미래목회’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18-2차 미래목회포럼’을 열고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와 미래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규(경주 순복음교회) 미래목회포럼 부대표는 ‘요시야 개혁의 교훈’을 주제로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으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요시야 종교개혁 성공이 주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며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서 찾지 못한 속도로 급성장했고 목회자와 교회는 늘 존경받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상이 떨어졌다”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요시야가 성공으로 이끌었던 종교개혁 세 가지 요소와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유사하다”며 “세 가지 요소는 개혁의 동력인 율법과 성경,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포용과 포섭, 백성들과의 언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미래목회포럼 부대표가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와 미래 목회-요시야 개혁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성경과 포용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는 세 나라에 비해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전통이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비전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기준이 되

는 성경과 말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배타성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밖을 향해 손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진 총평에서 박경배(송촌장로교회)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에 한국 교회의 대응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지 못했다고 성찰하며 말씀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 교회는 코로나 위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핑계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로 낙인이 찍혔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더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인 만큼 한국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과 씨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벗고 희망가 부르는 전환점으로”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회견 “회복 위해 기도할 것”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국내외의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은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이상문 목사)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예배 헌금 전액을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린다. ‘부활의 기쁨’을 주제로, ‘오늘의 희망’을 주제로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설교한다. 소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해의 다리가 되고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에도 국민 통합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예배 현장에는 거리 두

기 수칙을 지켜 전체 예배당 좌석의 70%에 해당하는 인원만 입장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수 성도가 모여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될 전망이다.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를 위해 예배는 유튜브 채널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각 교단 총회장과 사무총장들이 순서를 맡으며 예배 후에는 부활절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상문 대회장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코로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희망 전하는 데 최선”

기성 ‘성결인대회·목사안수식’ 92명 안수...여목사 17명 배출

‘새내기’ 목사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희망을 전할 것을 다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5일 서울 성동구 성락성결교회에서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을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을 기성은 2013년부터 성결인대회에서 목사안수식을 진행하며 기성 총회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있다.

신대원 졸업 후 전도사로 사역하며 목사 고시를 통과한 안수 대상자들은 기성의 사중 복음을 존중하고 경건과 청빙으로 목양할 것을 다짐했다. 기성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정체성으로 하는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성찬에 이어 사약 후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 선배 목사들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했다.

이 중 10명은 목회자인 부모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도 했다. 최연소 안수 대상자이자 군복인 강건(23) 목사는 아버지 강남웅 하늘교회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강건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에게 신앙적 자존감과 확신 그리고 희망을 북돋아 주는 목회 활동을 하고 싶다”며 “소그룹 모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신남옥 비전교회 목사에게 안수받은 신에량(32) 목사는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교단에서 목회의 길을 이어가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사역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수를 받고 축도권이 생긴 신입 목사들은 함께 온 부모와

아내 남편 자녀 등에 첫 축도를 하는 감격을 누렸다. 한민영(47) 목사는 남편 이진수 진옥교회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딸 하경양에게 축도했다. 한 목사는 “남편을 도와 사모로 사역하다가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됐다. 30년 딸도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어 이듬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했다”며 “성결을 강조하는 기성의 정체성을 따라 굳건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형은 총회장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목사의 직무에서 심장과 같다”며 “인종 종교 문화 사상 등의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목회자가 돼라”고 권면했다.

이날 기성은 남성 목사 75명, 여성 목사 17명을 배출했다. 군목도 4명이 나왔다. 30대가 50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40대가 22명, 50대 이상이 16명이었다.

결연교회 모집, 세례와 양육, 홍보사역 등

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열고 4가지 비전선포

군선교연합회가 밝힌 4가지 비전은 결연교회 모집, 군선교 세례와 양육, 홍보사역 협력, 청년선교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이

다. 우선 결연교회 모집으로 비전2030 사역을 지원한다. 결연교회는 군인교회에서 세례 받은 병사를 민간교회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군인이 전역 이후에도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선교 세례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훈련소나 신병교육대 등 양성기관에서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세례 받은 신자를 건강하게 양육해 그들이 주일예배

에 반드시 참석해 일상에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도모한다. 홍보사역 협력과 청년선교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6월 2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군선교 50년, 미래 100년을 열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연합사역 50주년 회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대의원에 대해 인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교 무게중심, 국내 이주민으로 옮겨라”

문창선 선교사, 고신 총회세계선교후협 선교포럼서 강조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2억8000만명 넘는 디아스포라(이주민)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인 이주민 교회를 통해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선교사 무총장 문창선 선교사는 4일 경북 경주시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 총회세계선교후협연합회의 회(선후협) 선교포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 선교사가 강조한 핵심은 ‘해외 선교에서 타 문화 선교로의 패러다임 이동’이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이주민 입국과 체류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가 한국사회 내 이주민에 대해 불법 체류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보내는 선교’에 몰두했을 뿐, ‘오는 선교’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교회 형편에 맞춘 ‘물지마시 이주민 사역’만 펼쳐 왔다”고 꼬집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 한국선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 167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2만2210명이다. 그중 선교 대상은 해외 현지인이 82.5%에 달하지만 국내 이주민은 2.8%에 그쳤다.

문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는 귀국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풍성한 기회”라며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지역 교회가 실질적 사역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문화권으로서의 특수성, 이주민의 고용 양상과 경제 상황, 문화권 차이에 따른 소통 양상 등을 고려해 사역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전철영(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교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역 전환을 집중 조명했다. 전 선교사무총장은 “GMS의 경우 지난 2월 말 기준 코로나로 89개국에서 1505명의 선교사가 귀국했지만 재귀입한 선교사는 722명에 불과

하며 한국에 머무는 선교사 상당수는 국내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의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만큼 한국교회도 그동안 유지해 왔던 속지주의 관점을 탈피해 지역이 아닌 민족 중심으로 전략적 재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화(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은 ‘재배치 영역의 확대와 팀 사역’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역적 개념을 넘어 네트워크와 콘텐츠 활용 분야까지 재배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홍 본부장은 “세계경제와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역의 주제, 대상, 종류에 중점을 두는 재배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난민 루트를 따라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펼치는 팀 사역, 한국교회의 순환 재배치를 통한 국내 이주민 제자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선후협 대표회장 박정근 목사는 “급변하는 선교 환경에선 ‘대격변’이 아니라 ‘대각성’이 필요하다”며 “선교포럼을 통해 시대를 꿰뚫는 지혜로운 선교 정책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한국교회 한마음 돼야”

선교통일한국협 등 제3회 북한교회 개척포럼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통일소망선교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북한교회 개척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했던 북한교회 재건 운동을 점검하고 나아가 방향성을 논의했다.

199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재건해야 할 북한교회의 2850개와 이름, 교회 위치와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한 백서를 자신으로 삼아 좀 더 구체적인 북한 복음화 연구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창욱 장신대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이 북한교회 재건 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역설했다. 변 교수는 “복음의 불모지 한국에서 진행한 초기 선교사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교회 재건

다”며 “49개 교단과 13개 단계가 ‘연합·단일교단·독립과 자립’이라는 3원칙에 합의해 한국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기준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속한 진보 교단이 이에 불참했다는 것과 운동을 구체화해 줄 학자 그룹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이 백서를 자신으로 삼아 좀 더 구체적인 북한 복음화 연구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창욱 장신대 교수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이 북한교회 재건 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역설했다. 변 교수는 “복음의 불모지 한국에서 진행한 초기 선교사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교회 재건

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교파 간 경쟁적인 교회 건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방적 혹은 시혜적 도움을 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호도움과 나눔의 실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교회와 교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수봉 박사는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한국교회는 비협동계임을 협동계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기관이 나서야 하고 협약을 만들고 잘 지켜지는 시 서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교회 재건의 의의와 가치를 남북한 교회가 공유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60 기독교인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한국교회 5060세대에게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5일 발표한 주간 리포트 ‘넘버즈 제138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50-6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신앙이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에 응답자의 95%가 동의했다. 이어 ‘삶의 의미를 준다’ 91%, ‘나의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해 준다’ 90%, ‘내 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89%, ‘우리 가족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82% 순이었다.

그러나 신앙이 ‘현실의 극복(물질, 건강, 사업, 직장 등)을 준다’는 것에 67%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았으며,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2%에 그쳤다.

연구소는 “5060세대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며 “신앙이 이런 힘을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과 가치관을 신앙이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앙의 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

라볼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앙은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5060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영생을 위해’가 50%로 가장 많이 꼽혔고, ‘마음의 평안’이 28%로 뒤를 이었다. ‘습관적’으로는 4% 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5060세대가 신앙 안에서 삶의 역경을 이길 힘을 찾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는 성장하여 흠어진 가족들이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선교의 창 (19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

이슬람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Pew Research Center는 10년 텀(Term)으로 세계 인구대비 이슬람의 성장률(%)을 내어놓았다. "1990:19.9%, 2000:21.6%, 2010:23.4%, 2020:26.4%, 2030:26.4%"이다. 이 속도로 나간다면 머지않아 기독교의 전진기지였던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가 이슬람으로 변했듯 지구촌의 종교지형도 크게 바뀌고 말 것이다.

상당수의 무슬림들은 2080년까지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미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50%를 넘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예측될까?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분야에 이슬람 권력자들이 등극할 것이다. 헌법과 모든 조례들도 하나씩 중동국가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청교도의 숨결이 깃든 이 땅의 기독교 문화와 유산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였던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이슬람이 지금처럼 계속 확장된다면 기독교 중심의 서구사회와 이슬람세계 사이에 대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01년 9·11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이를 확증해준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도 종교 간 대

결은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는 무슬림의 전략을 알고, 적절한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 손자병법의 모공편(謀攻篇)에 "지피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였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전쟁의 폐해를 재건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다. 이에 값싼 노동력의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은 초기에 사회 최하층 근로자들이었으나 점차로 유럽사회에 스며들었다. 그 결과로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은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를 넘어 '유라비아(Eurabia)' 공포로 확산돼가고 있다.

FIM대표의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는 720만 명에서 1990년에 1,300만 명으로 그리고 오늘날 약5,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럽인구의 7%에 달했다. 202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보는 자도 있다. 중동이 과거에 기독교 지역이었으나 오늘날 이슬

람을 가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최대한 초청한다. 호주 등 일부 서구 국가에서 무슬림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자 법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한다.

셋째는 다와(Daw'ah: 포교)이다. 그 의미는 "호소하다, 부르다, 의견의 찬동을 구한다"이다. 이슬람에는 원죄사상이 없다. 따라서 천국을 가는 조건으로 선행을 강조하는데 다와 행위와 이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도 선행에 속한다. 다와란 반드시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과 교육사업도 포함된다. 나아가 이슬람 사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운동도 다와이다.

넷째는 지하드(聖戰)이다. 이슬람 선교는 칼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일부 이슬람학자들도 책에서

등 다양하고 점진적인 활동을 펼친다.

3. 이슬람 성장의 한 축인 교리

이슬람 교리는 관념적이지 않고 단순하며 행위를 강조한다. 이슬람권 아래의 무슬림은 선택의 여지없이 다섯 기둥(Five Pillars of Islam)을 지켜야만 한다. 이는 신앙고백, 예배, 구제, 금식, 성지순례이다. 무슬림이 되는 첫걸음은 의외로 쉽다. 코란의 첫 구절인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알라만 있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면 된다. 이를 샤하다(Shahada)라고 부른다. 이 단순한 신앙고백 즉 '샤하다(Shahada)'이지만 한 번의 개종이 수백세대를 거쳐서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굴레가

있다. 일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종과 지역, 세대와 세대를 하나로 묶어 무슬림이라는 강력한 연대감을 심어주게 된다. 이처럼 이슬람의 교리는 단순명료하면서도 강력하다. 조금치도 결핵질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대체로 이슬람의 종교적 규율이 현대 상황에 맞느냐 못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생애적으로 따른다.

맺는 말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만 저들에게는 이슬람이 단순한 종교의 영역을 넘어 삶의 방식(A Way of Life)이요, 문화와 관습과 국가를 포괄하는 총체적 체제이다.

2022년 지금은 라마단 기간(4월2일-5월2일)이다. 이때에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들이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며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영안을 열어 광기어린 그 결집을 목도한다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가? 진정 참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을 체휼하고 있는가? 1년 365일에 금식 한 번은커녕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욕대로 사는 자들이 태반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너무나 자유롭다. 안일하다. 개체적이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깨어나야 한다. 혜안(慧眼)으로 10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 교회의 십자가가 이슬람의 심벌인 초생달로 바뀌지 않기 위해! 우리 후손에게 여독의 멍에를 씌어주지 않도록!

jsong007@hanmail.net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다.

18억 무슬림들은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후의 영적 기상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이기 때문이다.

1. 유럽을 점령해가고 있는 이슬람

"두고 보라. 신이 총 한 발을, 대포 한 방을 쏘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이슬람에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내 유럽의 5,000만 무슬림 인구는 이 지역을 이슬람 땅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전 리비아 대통령이었던 무아마드 카다피가 한 말이다.

지금 유럽은 이슬람에 대한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슬람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차

람권이 되었듯이 오늘날 유럽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가? 정도의 차이 일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 이슬람 성장의 주된 요인

첫째는 다산이다.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며 최대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다. 이슬람 여성은 산야제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이 이슬람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슬람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다.

둘째는 이민이다. 이슬람의 시작은 '헤즈라'라고 불리는 이민에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무슬림이 타국으로

이것을 서술하고 있다. 마호메트가 메카를 점령한 것이나 그의 사후 부하들이 중동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를 칼로 점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13세기 인도를 휩쓴 이슬람 세력이 칼을 통하여 힌두교 국가에 이슬람 무굴제국을 세웠다.

다섯째는 금력이다. 이슬람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가 하나로 병합되어 있다. 이로써 포교활동도 힘이 있다. 저들은 오일달러를 매체로 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슬람이 이슬람 대학이나 기관 등을 세우고 인프라(infrastrucute)를 구축하는 일, 엄청난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랍권에 유학주선하는 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역

된다. 이후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은 알라에게 예배(Salah)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매일 다섯 번씩 알라에게 직접 기도하는 일이다.

나아가 구제(Zakat)가 있다. 이는 "정화(purification)"와 "성장(growth)"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인 주거비와 직업에 필요한 도구 비용은 뺀 일년 수입 중 40분의 일 즉 2.5%가 기준이다.

또한 금식(SAWM)이 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 동안 해 뜨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식욕, 성욕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

끝으로 성지순례(하지)가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6)가이사라를 소개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체포 당합니다. 체포된 바울이 로마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라(Caesarea)로 옮겨져 2년간 구금생활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백부장 고넬료(Cornelius)가 근무했고, 베드로를 초청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다가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립바왕이 가이사라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두로와 시몬에서 가까운 이 가이사라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통치하면서 만든 도시가 이사라 빌립보와 다릅니다. 헤롯 빌립은 자신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Caesarea) 이름을 넣어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다른 가이사라 마리티마(Caesarea Maritima: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Caesarea Palestine)'라고 불렀는데, 지중해 해안가에 우뚝 선 로마 시대 행정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원래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니키아(Phoenician) 사람들이 거주했던 스타라토 망대(Strato's Tower)라는 도시였습니다. BC 103년 로마가 정복하였고 가이사라 황제 헤롯대왕(Herod the Great)에게 주었고 헤롯대왕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국제 해양

도시로 건설 후 가이사라에게 바쳤습니다. 건축전문가 헤롯대왕은 팔복할만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성전, 여리고 겨울 궁전, 사해 해변에 세운 마사다 요새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건축이 도시 가이사라 건축입니다.

헤롯대왕은 가이사라 건설 공사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 가이사라(Caesarea

Augustus)황제에게 헌정합니다. 헤롯은 이 도시건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투자했다고 성서지리학자인 데이빗 패드필드(David Padfield) 목사는 주장합니다. 건축전문가였던 헤롯대왕이 온 정성을 다해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라의

규모와 수준은 현대의 건축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의 라이벌 도시로 부상할 만큼 선진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놀라운 인공 항구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현대의 건축술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화려한 도시입니다. 석회암(Limestone)이 많이 사용되었고, 도시 중심가에서 극장으로 연결된 도보는 모자이크

벽돌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둥들이 도로변에 세워졌고 그 중에 1천300개가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의 활발한 해양무역을 가능케 하는 대형 물류창고도 발굴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대 중국의 도자기가 가이사라에서 발굴

되어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헤롯대왕은 가이사라에 궁궐, 로마황제신전, 극장, 시장, 경기장, 원형극장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등을 건설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극장은 4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극장입니다. 극장 유적에서 본디오 총독 빌라도(Prefect Pontius Pilate)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발굴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20-23에 헤롯 아그

립바왕(헤롯대왕의 손자)이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극장에서 연설하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 사학자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헤롯 아그립바왕이 다섯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의 헤롯 항구는 대단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항구를 아테네 항구인 피레우스(Piraeus)와 비교하면서 경이로운 시설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주변에 섬도 없고, 만도 없는 조건 속에서 이런 항구의 건설은 역사상 최초의 건설공사로 알려집니다. 아쉽게도 이 항구는 AD 130년경에 있었던 지진으로 파괴되었

린에서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고,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한 후 곧 로마총독이 주둔하는 유대지방(후에 팔레스타인지방)의 행정수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이 주둔하는 군사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정치적 중심도시로 시작해서 군사도시와 상업도시로 성장을 했고 초기 기독교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AD 3세기경에는 초대교회 지도자 오리겐이 2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또, 오리겐이 자랑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장서가 3만권이었습니다. AD 4세기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분야 자문관이었고 최초의 교회사가(敎會史家)로 알려진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라의 첫 감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도 가이사라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6세기에 성벽이 완성되어 요새화되었고, 아랍전쟁 후 잠시 쇠퇴하였으나 7세기에 다시 요새화 되었습니다. AD 1101년에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이후에는 십자군에 의해 다시 요새화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성장세는 13세기 십자군 전쟁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성서 지리학자인 데이빗 패드필드는 '동방전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의 출발지가 가이사라였다'고 주장합니다. chap1207@hotmail.com

가이사라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로마시대에 물이 부족한 도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Carmel) 수니(Shuni) 샘에서 상수도로 물을 관개했습니다. 이 상수 시설은 인구증가로 확장을 거듭해서 그 후 수도(水路:Aqueduct) 공사가 15차레나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도시화 공사가 끝났을 때 가이사라는 팔레스타

바울이 2년간 구금생활한 곳...13세기 십자군전쟁까지 성장세 지속 건축전문가 헤롯대왕의 건축 도시로 알렉산드리아의 라이벌로 부상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예수그리스도의 계시(계1:1)찬214장

요한계시록은 우리시대에 신자가 살피야 할 적절한 묵상말씀입니다.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그것은 일정한 질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1). 삼위일체의 천사회의에서 작성된 계시가 성부, 성자에게 시작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이 받아 온 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둘째, 그 계시는 인격적입니다. 한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전달했습니다. 하나

님의 계시 수종자인 천사에게 임한 계시는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져 살아있는 영적교통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신인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시이기에 이 세상에 밝히 알려졌습니다. 셋째, 계시록의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였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 삼시다.

화 복된 자(계1:2-3)찬28장

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그의 계시, 성경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복됩니다. 첫째, 양심으로 읽는 자(설교자)가 복됩니다. 교회 공적예배에 계시를 낭독하며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자와 신자들은 언제나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둘째, 듣는 자가 복됩니다. 교회 공적예배에 그 계시를 마음에 잘 받는 자가 진정 복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계시를 잘 깨달아 생각의 변

화를 일으키고 모든 삶에 인내의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계시의 깨달음의 은혜가 모든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 곧 계시를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사용해 그 계시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수 사도요한의 문안(계1:4-5)찬434장

요한이 보낸 문안은 계시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교회가 누릴 복의 열쇠입니다.

첫째, 그 계시는 교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4). 세상안의 모든 교회만이 겸손의 심정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시를 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질 은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이 복을 적용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복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셋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는 평강이 임합니다(5). 먼저가 은혜이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바로 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성령)를 중심한 삶이 가져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목 구원 성취자 예수님(계1:5-6)찬511장

요한의 계시는 성삼위 중에서도 성자의 구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자의 구속이 교회가 누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5).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

의 백성으로 불변하는 언약관계로 사랑과 순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부의 보좌로 나아가 그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완전히 이루신 성자의 구속을 즐기며 증거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금 재림주의 모습(계1:7-8)찬219장

요한이 받은 계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친히 오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첫째, 구름타고 오십니다(7). 승천하실 때에 구름타고 가신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한 상징주의입니다. 그는 초능력의 주로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려 오십니다. 둘째, 각 사람의

눈으로 보게 오십니다(8). 모든 족속이 그를 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가슴을 치며 받을 형벌을 바라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옥행렬로 인해 애곡하게 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8). 높이 올라가 아래를 볼 때 더 분명해지듯이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토 고난이 가져온 복(계1:9)찬463장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왜 밧모섬에서 격리생활을 합니까? 첫째,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 하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관계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야 하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였습니다. 둘째, 교회사에 보면 그가 귀양살이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박해를 받아 끊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자 밧모섬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셋째, 격리된 생활 속에서도 신령한 복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적 재난 속에도 입을 넓게 열어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2)



윤임상 교수 (월디시온대학교대학원)

베토벤, 그의 부활 찬양 “할렐루야” 합창 (Beethoven's Hallelujah Chorus from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음악의 화성에 피카르디 3도(Picardy third) 혹은 피카르디 종지(Picardy cadence)라는 하모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조음악을 마저막코드 3음에 반음을 올려 장조로 전환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르네상스 이전에 작곡가들이 단조의 화성으로 곡이 끝나는 것은 무언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종지를 사용하여 환희와 기쁨 그리고 완벽을 표현하며 음악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 용어는 1768년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곡가인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여 작곡가들이 이 화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시각각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마음의 작은 틀어짐과 소요 속에서 또 인생의 배가 뒤집힐 만한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의 품을 파고들라고 우리를 다독인다”고 이어령(1934-2022) 선생님이 표현한 글이 당시 베토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필자는 생각되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의 생애를 보면 이 피카르디 종지를 띄우려 합니다. 아울러 그가 쓴 유일한 수난 오라토리오(Passion Oratorio Music) Christus am Ölberge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 Op.85를 보면 또한 이 종지 화성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수난 속에 승리의 부활을 나타내며 복음의 완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

결국 베토벤은 큰 고통의 대가를 치루고 나서 그의 내면에 담겨있는 아직 꺼내지 못한 예술의 세계를 담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1801년경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통의 절정을 치루고 난 이후로 깊은 영감을 음악으로 담아내어 주옥같은 명곡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선율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슬픔을 위로해 주며 희망과 환희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삶에 극적인 전환이 된 1년 후인 1802년에 드디어 그의 생을 표현하듯 그의 수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생애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곡가들이

인간적 고통의 절정 음악으로 담아낸 명곡 남긴 베토벤 혹독한 현실 속에도 ‘주님 부활’ 이 우리 일상 외침 돼야

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중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불행한, 그러나 위대한 음악의 유산을 남겨 인류역사에 큰 공헌을 한 결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작곡가였습니다. CS 루이스(C. S. Lewis, 1898-1963)가 “제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입니다”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대를 표방하며 역설을 펼치는 것처럼 베토벤은 음악가 중 자신의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역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그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난음악을 쓸 때 그리스도의 수난만을 집중적으로 음악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수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옛세대에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수난과정을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마지막에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합창”으로서 베토벤 특유의 웅장함으로 부활의 대 서사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수난 오라토리오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그가 20대 후반부터 점점 심해지는 청각장애로 인해 사회생활과 음악인으로서 큰 어려움, 그리고 큰 슬픔을 겪자 급기야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그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인 “하일리겐 슈타트(Heiligenstadt)”를 통해 밝혔습니다. 베토벤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뮈세(Alfred de Musset, 1810-1857)는 마치 베토벤이 고통을 통해 깨달은 모습을 연상하듯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형벌이라는 십자가 그 불행의 세례를 받고 모진 고통의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다는 창조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견습생, 고통은 그의 스승이니 고통 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법칙이지만 최고의 법칙이다. 세상처럼 오래된 법칙인 것이다. 이 법칙은 우리가 불행의 세례를 받고 슬픈 값을 다 치른 후에 사야 하는 운명이다.”

인류 역사상 이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초기 기독교공동체였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카타콤 기독교인들은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매 번 서로 만나면 첫 인사가 ‘He is Risen’(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였다고 합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윗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일기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



“꿈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도 없습니다.”

간기의 마지막 달, 일년 중 가장 핫한 4월입니다. 햇빛이 따갑고 가장 더운 시절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범정화페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하락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급증하다보니...

인권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음으로 잠시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월드밀알선교회 창간 2년째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과 한국 세계 각 지회에서 150여명의 단원들이 방문해...

월드밀알 스텝들이 산살바도르에 방문하여 엘살바도르 7가정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학교, 국회의원, 문화부장관 등 많은...

월드밀알 스텝들이 산살바도르에 방문하여 엘살바도르 7가정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학교, 국회의원, 문화부장관 등 많은...

월드밀알 스텝들이 산살바도르에 방문하여 엘살바도르 7가정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학교, 국회의원, 문화부장관 등 많은...

월드밀알 스텝들이 산살바도르에 방문하여 엘살바도르 7가정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학교, 국회의원, 문화부장관 등 많은...

월드밀알 스텝들이 산살바도르에 방문하여 엘살바도르 7가정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학교, 국회의원, 문화부장관 등 많은...

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남편은 꿈쟁이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꿈을 쫓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꿈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도 없습니다. 꿈이란 내일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꿈을 마음속에서 분명히 기록해두면...

꿈을 위해 일하다 보면 외롭고 황량한 광야도 만납니다. 우리 광야를 만났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열심이 특입니다. 꿈을 꾸면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심지 않고 과일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꿈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꿈은 분명한 목표가 있게 합니다. 비전 때문에 사역에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솟구치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이 꿈을 잃으면 활기가 없습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잃으면 활기가 없습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hyj0691@gmail.com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차 마감 4월30일

“예수, 온 인류의 소망”, 7월 11-14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2차 마감일이 4월 30일로 다가왔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시카고 워튼칼리지에서 열린 제 1차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며 한국 기독교 선교의 장을 열었다.

이번 9차 대회의 특징은 첫째, 선교운동의 세대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개척을 감당한 개척세대들의 노고를 감사하며, 상대적으로 중심 무대에 서지 못했던 50대와 40대 선교사들이 1세대 선교사역을 계승하고 20대 30대로 성장한 MK세대들이 함께 한다.

또 미주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이 참여 하거나 또한 MK세대와 네트워킹을 이룰 수 있는 MZ세대(미주의 20-30대)가 함께 함으로 한 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운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최측은 20-30대들이 전체 참가자의 약1/3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선교대회는 실질적인 네트워킹 빌딩의 장이 되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세대별, 공동관심사

별, 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이 참여해 대회가 끝나고 이후로 이어지는 네트워킹이 형성되도록 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는, MK들과 MZ세대가 네트워킹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 전문분야별 트랙중심으로 진행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이루는 가운데 8개의 전문분야를 선정했다.

①디아스포라 현상에서 나타난 제자삼기 ②도시선교에서 나타난 제자삼기 ③플랫폼선교를 통해서 제자삼기 ④교육선교를 통한 제자삼기 ⑤문화선교를 통한 제자삼기 ⑥비정부기구(국제기구)를 통한 제자삼기 ⑦BAM을 통한 제자삼기 ⑧선교동원을 통한 제자삼기

이제는 현재 가장 다뤄져야 할 선교전략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자 함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kwmc2022.org)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지역중심 워크샵은 없지만 중심 분야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논하는 기회들이 있다.

주최 측은 각국에서 앞서 설명한 트랙과 워크샵 분야에 적극적으로

9차 KWMC 대회 일정표. 행사, 온 인류의 소망 '예수, 온 인류의 소망' 7월 11-14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06:00-08:50, 09:00-09:20, 09:20-10:00, 10:00-10:20, 10:20-11:00, 11:00-11:40, 11:40-13:00, 13:00-13:30, 13:30-14:00, 14:00-15:20, 15:20-15:40, 15:40-16:40, 16:40-17:30, 17:30-19:00, 19:00-21:00.

으로 참여해왔거나 관심을 갖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감사나 참여자로 추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모델이 되는 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주한인교회와 선교로 동원되고 선교운동의 세대계승이 이뤄지며 선교지와 함께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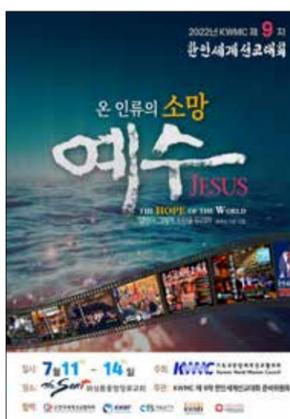
신청사이트: https://forms.gle/7ztorPotarjXA6xs5. 문의: 한국: 070-4610-1346/미주: 1-714-603-7192 (정리: 유원정 기자)

교회음악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이들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이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부까지 장장 250여년의 흑암시대 속에서도 기독교가 절대 말살되지 않고 견제하게 되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2022년 부활의 시기에 영원히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러나 완전하게 종지를 만든 피카르디 종지 화성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합창으로 할렐루야를 표현했던 베토벤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만의 우아함과 화려함, 그리고 웅장함을 갖고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iyoon@wmu.edu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단국대학교 총동창회 자문위원,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ABKI) 제12기 동문회 고문, 한국유족주의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대표고문,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M.Min)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특수선교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부활절 축하 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213) 481-2779
www.srcla.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한길교회
담임목사: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Tel.(201)615-14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hg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